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 의회소식

VOL.

77

2017 Autumn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CONTENTS



태화산 [공주시]

가을엽서

안도현 시인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04 개회사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 개회사

05 본회의

충청남도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29개 안건 의결

06 핫이슈

2017년 가을 충청남도의회 핫이슈

10 의원논단

윤석우 의장, 유병국 의원 논단

15 도정 · 교육행정 질문

충청남도의회 도정 · 교육행정 질문

30 5분 발언

충청남도의회 의원 5분 발언

44 현장의정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47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특별위원회
백제문화유적세계유산확장등재 및 문화관광활성화특별위원회

58 의원주장

충청남도의회 의원주장

60 주요안전처리현황

제297회 주요안전처리현황
제298회 주요안전처리현황
제299회 주요안전처리현황

71 연구모임 및 의정토론회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및 의정토론회

80 포토의정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높은 가을 하늘과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제299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며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전념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9월 21일에는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2017금산세계인삼 엑스포'가 개막을 하게 되고, 29일에는 '제63회 백제문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지역축제는 우리 도에 대한 홍보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 처리와 함께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어느덧 올 해도 석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활기차게 시작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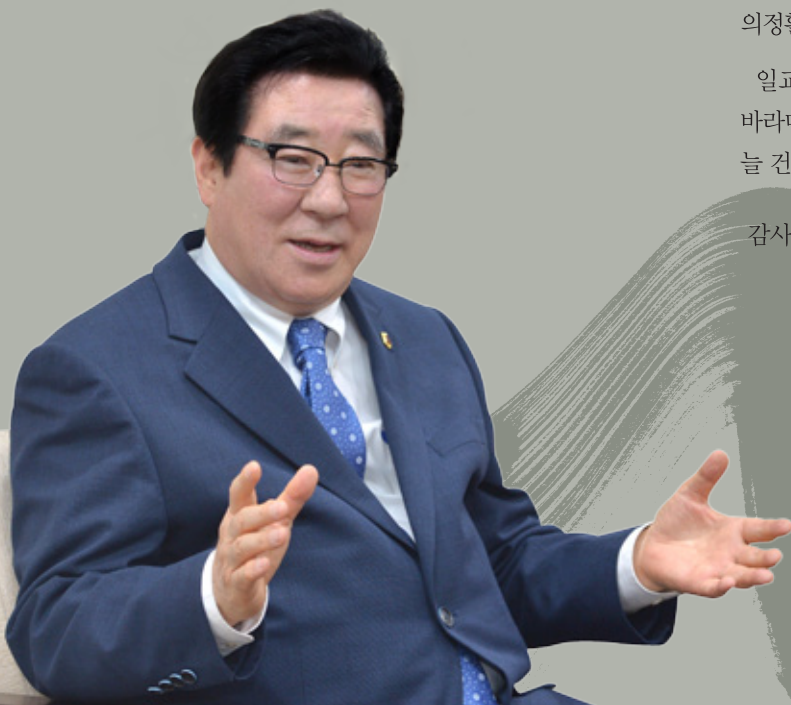
일교차가 심한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9.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 석 우



충남도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29개 안건 의결

도민 복리 증진 위한 조례 11건 및 도 실국별 출연계획안 수정·원안 가결
금산엑스포 등 지역 현안 목소리 청취하고 도정 접목 위한 현장 활동 나서



충남도의회는 9월 28일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등 29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도 본청 실국별 출연 계획과 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했다.

도의회는 이와 별개로 지역 현안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한 현장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 행정자치위원회는 부여구드래 역사마을 조성부지를 찾아 도유재산 교환에 적합여부를 논의했다.

또 농업경제환경위는 축산시설현대화 농장과 스마트팜 및 스마트원예단지 등을 벤치마킹했으며,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 특위는 엑스포 현장을 찾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위는 자연친화적 학교로 알려진 금산 상곡초와 비단골 체험학습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윤석우 의장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됐다”며 “앞으로 도민 복리 증진 등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는 도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OT ISSUE



윤석우 회장,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광역의회 당면 현안’ 건의

2017년 국제입법 심포지엄 참석... 축사 등 통해 보좌관제 도입 등 건의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이 6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활성화 등을 재차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날 경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7년 국제입법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해 광역의회 현안 사안을 전달했다. 윤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분권화된 지방의 권력은 지방의회라는 주민 대의기관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민주적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지방의회 업무범위와 능력, 의정역량을 발전시킬 광역의원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할 인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와 광역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역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노력에 국회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건의한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지난 3년, 도민 복리 증진 등 지방과 중앙 간 가교 역할 충실

각종 현안 실태레 푸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 가교 역할 충실... 도민 대변자로 우뚝
총 373일 회기 기간 543개 안건 처리...도민 삶과 질 향상과 경제 협력 초점 등



충남도의회는 지난 3년 성과를 요약하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경제 협력에 앞장선 것으로 압축된다.

특히 충남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실태레 푸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다.

◆ 3년 간 의정 성적표

지난 3년간 도의회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26회(373일)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54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현안 해결을 둘러싼 견제와 감시 정신이 돋보였다. 실제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총 134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됐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대변하기 위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29건의 결의안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등 5건의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 2018년도 정부 예산 확보 총력… 밀착 행보

윤석우 의장, 서형달 예결특위위원장, 국회 백재현 예결특위원장 만나 국비 5조 6000억 원 요청
당면 현안인 가뭄 상황 및 대책 사업 장기적 대응책 마련 등 올해 추경 예산 지원 건의

충남도의회가 내년도 충남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과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월 12일 국회에서 백재현 예결특위위원장을 만나 미래 신성장동력을 비롯한 항공·도로 등 충남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8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를 5조 6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목표 안에는 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산업, 항만·어항·생태복원의 해양개발 등 신규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장은 충남도 10대 신규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162억 원), 외연도항 정비사업(327억 원) 등을 건의했다. 또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465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6502억 원),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6765억 원) 등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 견제와 감시 잘했나

도의회는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1271건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다.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116차례 발언대에 올라 370건에 대한 현안의 난맥상을 짚었다. 또 도민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에서는 가뭄피해지역 농업용수개발 대책 등 210차례에 걸쳐 현안 문제를 진단했다.

◆ 국제적 위상 강화

도의회는 지난해 제7회 동북아 의장 포럼을 개최, 한·중·일·러·몽골 등 5개국 10개 지방의회를 충남으로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동북아 지역 간 문화·관광 교류를 넘어 경제 협력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선순환 구조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의정력을 쏟았다. 이는 도내 국제관광객 비율이 2~3%대로 미약한 만큼 동북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도의회는 이번 포럼을 발판 삼아 백제 문화를 동북아에 전파하는 등 관광 상품화를 통한 문화·관광 경쟁력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계룡산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미래세대 환경교육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건립(내년도 20억 원)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윤 의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와 별개로 충남의 당면 현안인 가뭄 상황 및 대책 사업에 대해서도 장기적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경으로 요청한 국비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228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960억 원 ▲보령 창동 정수장 개량사업 167억 원 등 총 5639억 원이다. 또 내년도 가뭄극복 사업으로 유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21억 원)을 비롯한 부여 북부지방 지방상수도 확충사업(39억 원) 등 5개 사업 1340억 원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윤 의장은 “충남 지역의 가뭄 현상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령댐의 수위는 11.9%로 예년(30.1%)보다 약 20%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지하수 사용시설에서는 용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가뭄해소를 위해 항구적 대책사업 2개 분야 11개 사업 9640억 원(국비 6979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쉴 틈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충남 현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의회는 중국경제 부상 등 국제적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간 연대 등 심층적인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 풀어야 할 과제

도의회는 지난 3년간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한 후원회제도, 인사권 독립 등 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었다. 윤석우 의장이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국회와 정부를 쫓아다니며 설득에 나섰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아직 얻진 못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후원회 도입과 관련한 의견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첫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와 별개로 극심한 가뭄 문제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자연재해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과제로 남았다. 윤석우 의장은 “지난 3년간 도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며 “충남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 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천안지역 찾아 수해 복구 작업 힘 보태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 사무처 직원 등 농작물 복구 작업 도우며 구슬땀 찼던 비닐하우스 정비, 마을 쓰레기 잡하물 수거 등 수마 할린 상처 지우기 주력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천안지역구 도의원, 사무처 직원들이 7월 26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를 찾아 복구작업에 힘을 보탤다. 윤석우 의장, 김동욱·김종문·김연·이공휘·홍성현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40여명은 이날 천안시 북면 일원의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물결레질과 주택 가재도구를 씻고, 마을 쓰레기 잡하물 수거, 찢긴 비닐하우스를 정비하는 등 수마가 할린 상처 지우기에 주력했다.

윤석우 의장은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직원 등이 솔선수범 참여하게됐다”고 말했다. 천안지역 의원들도 “무참히 쓰러진 농가의 비닐을 걷고, 침수돼 버려진 농작물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도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에는 최근 잇따른 폭우가 쏟아져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 행감 사회 갈등 낮추고 감사 효율성 높인다

도의회 시군 감사 지난 6월 30일 공포된 만큼, 밀도 있는 감사 필요성 제기
1년 유보기간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극대화할 것... 전국적 공감대 형성

충남도의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시군 행감을 두고 여러 이견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사 결과의 효율성과 진정성을 높여내기 위해서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 부의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은 9월 4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당장 시군 행감을 무리해서 강행하지 않고 미비점 등을 점검·보완해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졌으며, 이에 따라 일선 시·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 행감 시행 시기를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올해 시군 행감을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어 신중히 추진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지난 6월 30일 해당 조례가 공포된 만큼, 밀도 있는 행감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지난 3년간 시군 행감이 중단됐던 점 등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의회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 낮추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집행 적정성과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가 일각에선 통제의 의미로 인식하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총 682건에 달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국비 2조 3000억원, 도비 5800억원 등 총 3조에 달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례가 지난 6월 30일 공포된 만큼 자료 준비가 부족하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유보기간을 두어 제11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도의회는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8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감사가 통제의 의미보다는 도의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도의회와의 소통의 장으로 보아야 한다”며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 김종진 문화재청장 만나 현안 사업 건의

동학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및 불교문화원
보수 정비 사업 등 내년도 국비 지원 요청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이 지역 현안사업 관련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10월 12일 문화재청을 방문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윤 의장은 이날 김종진 문화재청장을 만나 충남 문화재 관련 역점 사업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 등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장이 국비를 요청한 현안 사업은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지원 ▲동학사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및 불교문화원 보수정비 사업 ▲공주금강철교 등 문화재보수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한국불교 비구니사의 전통을 계승해 사찰문화를 체험하고, 오랜 시간 불교사가 축적된 자료를 홍보·전시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계룡산과 동학사를 찾는 내·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윤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불교문화원 보수정비사업과 연계해 불교문화의 이해 및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장소 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국회와 행안부 찾아 지방분권 개헌 등 건의

시도의회회장 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부겸 장관 만나
지방의회 현안 전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 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속도내야...

충남도의회가 지방분권 개헌 등을 위한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 등은 10월 1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부겸 장관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당 대표와 장관의 만남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 입법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에 대해 건의했다.

또 지방정부의 인사·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윤 의장은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면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적 사무처리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를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지방행정 환경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지만, 광역의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
논단24절기에 깃든
옛 선조의 지혜윤석우
의장

지난 7월 7일은 절기 상 ‘소서(小暑)’였다. ‘작은 더위’라는 뜻을 지니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또한 이 시기는 주로 여름 장마철에 해당되어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가로질러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린다. 주로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했는데, 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때쯤으로 보았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모를 낸 20일쯤 뒤인 소서 때에 김매기를 했던 것이다.

모 뿌리에 잡초가 얹히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서서 했다. 각자의 논에만 김매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힘이 부족한 어르신들이나 여자와 어린 아이들만 있는 집의 논까지 함께 김매기를 해주는 등 두레의 풍습도 이어졌었다.

그리고 ‘늦모심기’도 이루어졌다. 하지부터 소서까지 심는 모를 늦모라고 하는데, 오랜 가뭄에 논물이 없거나 일손이 늦어진 사람들이 늦모심기에 바빴던 시기였다. 또한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하고, 가을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조, 팥을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소서’를 비롯한 ‘24절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24절기는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음력은 날짜를 세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생기는 날씨의 변화를 잘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를 24등분 한 뒤, 날씨의 변화를 연구하게 된 것이다. 원이 360°이기에, 이를 24등분 하면 한 칸은 15°에 해당된다. 즉, 15°만큼 바뀔 때의 상황에 황하 유역 지방의 날씨를 나타내는 용어를 붙여 24절기를 완성한 것이다.

즉, 24절기는 음력을 사용하는 시대에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사실상 양력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졌지만,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정했기에 양력의 날짜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24절기의 날짜는 양력으로 매월 3일에서 9일 사이, 그리고 19일에서 23일 사이에 있게 된다. 그런데 절기와 절기 사이는 대부분 15일이지만 14일 또는 16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원이 아닌 약간 찌그러진 타원모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15°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물 때’라는 말이 있다. 일곱물이다, 아홉물이다, 하면서 만조 조수간만의 차이를 알아본 후 고기잡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는 음력이 기준이 된다. 즉 달의 움직임을 갖고 측정하는 것이다. 미 해군의 최첨단 기술에도 음력을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력을 도입한 시기가 대한제국 말엽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그런 점에서 양력이 없었던 농경국가 시절에도 24절기를 사용하며 마치 농사일정표처럼 농사짓는 순서와 시기, 방법 등을 제시한 옛 선조의 지혜가 놀랍기만하다. 그리고 계절별로 각각 6개의 절기를 담고 있기에 우리나라 계절의 변화모습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4계절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24절기는 결코 급변하거나 없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옛 선조의 지혜가 담겨있는 24절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여러모로 생활에 유익할 것이다.

의원
논단백제문화,
그윽한 향기를 만나다윤석우
의장

‘천리물길 비단강’인 금강이 유유히 감싸며 흐르고 있는 공주시와 부여군은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 국가였던 백제왕국의 찬란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작품과 유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숨 쉬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그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7월 8일 대한민국의 12번째 세계유산이 되었다.

백제 후기 8개 유적들로 구성된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 등을 받아들이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8개 유적지 중 6개가 웅진시대(475~538년)와 사비시대(538~660년)에 백제의 왕도가 위치해 있었던 공주시와 부여군에 분포해 있다. 백제문화제는 이러한 백제왕도의 중심지역에서 63년째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1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백제역사의 실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고대왕국의 탁월한 예술미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고 있다.

올 해 「제63회 백제문화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류원조 백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이번 주제는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백제의 진취성과 개방성, 창조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97개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슴 벅찬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개막식은 9월 29일 공주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지게 된다. 특히, 처음으로 일본에 기악무를 전파했던 미마지를 소재로 한 ‘한류백제 미마지 미디어아트쇼’등 신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선보이게 된다. 공주시는 금강변과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그리고 주변 시가지 등에서 다채로운 볼거리가 진행된다.

관람의 백미는, 개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백제한화불꽃축제’이다. 중부권 최대의 규모의 불꽃이 3막으로 펼쳐지게 되며 금강의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또한, 공주시 8개 읍·면·동을 비롯해 시민, 대학생, 다문화가정, 관광객 등이 흥겹게 참여하는 ‘웅진성퍼레이드’, 금강위에서 펼쳐지는 실경공연인 ‘웅진판타지아’, 백제 문화 및 생활을 체험하는 ‘백제마을고마촌’, 백제교류국 사절단 모습을 재현하는 ‘대백제 교류왕국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여군은 정림사지를 중심으로 주변 시가지와 구드래공원,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등에서 축제가 펼쳐진다. 부여 축제 프로그램의 관람 포인트는 역사와 문화의 재현에 있다. 백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통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백제역사문화행렬’은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거리축제로 재구성한 행사로, 1965년부터 현재까지 백제문화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다. 삼층제와 수륙제는 1955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시원 프로그램이며, 백제문화제의 정체성을 가장 깊게 담고 있다. 그리고 663년 금강하구에서 백제-왜, 신라-당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백강전투를 테마로 구성한 서사무지컬인 ‘백강의 노래’, 제26대 성왕의 사비성 천도를 재현하는 ‘백제사비천도행렬’과 사비백제의 번영을 기리는 ‘백제사비정도고유제’등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금년도의 백제문화제는 지난 ‘2010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의미를 이어가면서, 2021년쯤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칭 ‘백제문화제 엑스포’를 한걸음씩 가시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뜻깊은 행사이다. 특히 백제문화제엑스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국제행사 승인과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원
논단

이제 더 이상 ‘삼복’더위란 없다

윤석우
의장

여전히 덥긴 하지만 입추가 지나면서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서서히 끝자락에 들어서고 있다.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 더위도 끝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올 해는 초복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6월부터 전국적인 폭염이 찾아왔다. 극심한 가뭄도 겹치면서 온 국민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장마 기간 중에도 30도를 웃도는 고온현상은 지속되었다. 그리고 7월 중순에는 충북과 충남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농가가 극심한 피해와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가축과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막바지 여름을 힘겹게 견디고 있다. 오늘은 지나가고 있는 ‘삼복’ 더위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고자 한다. 삼복은 시기상으로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잡절’에 해당된다. 24절기에 속하지 않기에 잡절이라 불리지만, 한자인 옳되(伏)자에서 보듯이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 즉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때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유의하면서 지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나라 덕공 2년(기원전 676년)에 처음으로 복날을 만들어 견공을 잡아 열독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 나쁜 기운과 해충을 막아내자는 뜻으로 복날에 성안에서 삼복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후기에 간행된 ‘동국 세시기’에서 삼복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양반들은 빙표를 받아 나라에서 열음을 보관하던 창고인 장빙고에서 열음을 타가기도 했으며, 백성들은 산과 계곡으로 올라가 발을 담그고 술과 음식을 나누는 탁족을 즐겼다. 예전에는 삼복을 식으로 주로 단고기를 먹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반감 등으로 닭에 인삼과 대추, 참쌀을 넣어 깊게 우려내는 삼계탕이 대표적인 복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한 해의 가장 더운 절기에 나쁜 액운을 쫓고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팔죽을 끓여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아무튼, 우리네 조상은 이 덥고 힘든 시기를 서로의 이웃을 위해 음식과 정을 나누며 보

냈기에 기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커진 현대인들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조상의 따뜻한 마음이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최근에는 삼복더위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워낙에 일찍부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말복이 지나서도 더위가 지속되기에 삼복이 아니라 오복이라고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 여름철 북극의 얼음이 한 달 동안 녹는 양이 남한 면적에 육박한다고 하며,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산호섬들은 이미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도가 섭씨 3도가 올라가면 최대 40억 명이 물 부족에 허덕이게 되고, 기근 피해자도 5억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지구 생물의 50%가 멸종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심각한 경고를 해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종이 바로 수산생물이라고 한다.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수산생물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자 보물이다. 국립수산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평균수온은 지난 40년간 1.3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변화가 아닌 것 같지만, 지난 100년간 지구 전체의 해양평균수온이 0.5도 상승하였다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산물생산의 주종 또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명태가 사라졌기에 시중 동태탕의 원산지는 러시아인지 오래이며, 현재 바닷가에서는 오징어 대신에 낙지가 고등어 대신에 갈치가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높아지는 기온과 수온에 맞춰가며 농업과 수산업을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기관과 농어업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그에 맞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는 도전정신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의원
논단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며윤석우
의장

“몸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이지만, 공통적으로 답하는 식재료가 있다. 바로 인삼이다. 만병통치약이라 부를 만큼, 인삼은 질병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혈액순환, 피로해소, 두뇌개발 등에 좋은 영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삼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은 그 약효가 매우 뛰어나 인삼 중의 인삼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려인삼 재배지로는 금산, 풍기, 제천, 강화 지역이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금산 인삼은 가장 유명하고, 또 최고로 꼽히는 인삼이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인삼하면 금산, 금산하면 인삼이다. 금산 인삼이 이토록 최고로 알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그 재배 역사가 유구한 까닭이다. 금산에는 개삼터라는 곳이 있다. 인삼 재배가 최초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그 시기가 무려 1,500년 전이다. 백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인삼을 기르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 곳이기도 그만큼 좋은 인삼을 생산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약재로서의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인삼의 약효는 주로 사포닌이라는 성분에서 나온다. 이 사포닌의 종류와 함량이 많을수록 좋은 인삼으로 치는데, 금산 인삼은 사포닌 종류와 함량이 인삼 중 으뜸이라 한다. 이렇게 뛰어난 약효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금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이다. 인삼은 재배가 무척 까다로운 작물로, 서늘하고 그늘지며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만 자란다. 금산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곳이기도 인삼이 좋아하는 서늘하고 그늘진 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토질 또한 사양토질로 배수가 원활하다. 말하자면 인삼에게는 낙원과도 같은 곳이다.

셋째, 전국 인삼의 유통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인삼의 80%가 금산으로 집결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인삼 가공 역시 대부분 금산에서 이루어진다.

유통량과 인삼 가공에서 타 지역이 따라올 수 없는 명실상부한 인삼의 허브다.

넷째, 금산 인삼을 세계 최고로 브랜드화하려는 충남도와 금산군의 노력 때문이다. 더욱 좋은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삼약초연구소를 설립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년 인삼축제를 열고 4년마다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인삼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있다. 단일 품목에서 매년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모자라 엑스포까지 꾸준히 개최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인삼의 고장 금산에서 오는 9월 22일,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게 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인삼은 물론 생산자재 및 기술, 그리고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미용 제품들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전시회 등이 펼쳐지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인삼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 퍼레이드, 인삼을 주제로 한 각종 공연, 인삼 캐기 체험 등을 마련해 누구나 인삼의 긍정적 의미를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했다. 금산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지구촌에서 첫째가는 웰빙 건강 도시, 명실상부한 인삼 교역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의원
논단일본
국외연수를 마치며...유병국
의원(천안3)

우리는 일본을 말할 때 꼭 “가깝고도 먼 나라” 라고 표현한다. 일본과 축구, 야구, 복싱 등 국가 대항전이 있는 날이면 온 국민이 열을 올리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꼭 이겨야 한다고 광분할 정도로 열을 올린다.

이렇게 온 국민이 일본과 일본인을 싫어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 일제 강점기 36년간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과 악행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광분은 광분도 아닐 것이다.

또한 지난날의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때만 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여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어디 그뿐이라?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 간 우리 조선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무참히 인권 유린한 그들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일본에 대한 시선이 곱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미 1965년에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양국 간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제 일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우리 충남도 34년 전에 일본 구마모토 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또한 민간교류 측면에서는 구마모토 현 일한친선협회는 36년 전에 창립하여 충청남도 한일친선협회와 36년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며 교류를 넓혀 왔다.

다만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그동안 대전충남한일친선협회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일본 측의 요청으로 대전 충남을 분리하여 충청남도 한일친선협회창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 첫 번째

행사로 일본 측 일한친선협회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에서 구마모토 현 청사를 방문하였는데 그 곳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구마모토 현에서 큰 지진으로 주택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충남도에서 부지사님이 방문하여 주시고 많은 성금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

또한 이곳에서 만난 일본 주재 한국 총영사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을 미워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일본인들도 반한 감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큰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총영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여행객을 폭행한 일본인에 관련된 TV 뉴스를 떠올렸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만행과 그들의 과오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일본을 미워하고 적대시 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득이 될 것은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인 대립과 마찰은 있을 수 있어도 민간교류를 통한 양 국민들 간의 교류는 무역이라든지 관광 등 양국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짐작되면 이러한 민간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일본 연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다 글로 남길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을 다짐하면서 연수소감을 마친다.

도정 교육행정 질문

Q | A



전낙운 의원

Q1

채운면에 이화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25명으로 1, 2학년은 한 교실에서 배우고 5, 6학년이 또 한 교실에서 배우고 선생님 한 분이 1학년 가르치다가 2학년 가르치다 또 5, 6학년 교실도 마찬가지임. 학생 2~3명에 선생님, 교직원 1명씩 이러다 보니까 학생 1인당 2,000만 원 이상 들고 9,000만 원까지도 학생 1명 양성에 1년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고 있음. 그런데 작은 학교가 존재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귀농 인구도 생기고 아이들도 낳고 하는데 시골에 학교가 없다고 하면 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동네가 형성되고 결국은 마을이 소멸될 것임. 그래서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보면 “이겁니다” 하고 대답을 못 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A1

이 지역에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장 선생님들께서 손에 쥐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음. 교육행복지구를 통해서 작은 학교에 마을과 함께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지금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함.

Q2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있는 반면에 ○○○○회사라는 개별 기업이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네 번의 심의를 끝내고 보류가 됐음. 본래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해 가지고 투자 적격이나 부적격이나가 결정되는데 네 번까지 끌고 간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람

A2

태화산단 같은 경우는 환경물질이 생산되는 회사다 보니까 지역주민, 민가가 밀집이 되어 있어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그래서 이 내용보완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의 규모가 적절한지도 보완하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네 번을 개최하게 된 것임.

Q3

작년 9월의 태화산업단지 4차 심의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반려가 됐고 반려가 되니까 사업주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앞으로 기업경영이나 잘 하겠다고 돌아갔는데 뒤에서는 큰 법률회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도 제소를 했음.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그 사업주 손을 들어줘서 지금 5차 심의를 9월 20일경 한다고 들었음.

그런데 이렇게 주민하고 행정기관 뒤통수 때리는 이런 사업주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겠는가?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이유는 연산 ㅇㅇ화학 옆에는 우리 연산 주민이 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먹거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함. 그래서 심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걸 질의하고 요구하는 것임. 좋은 환경과 맑은 공기와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람.

A3

잘 알겠음.

Q4

논산천에 놓여있는 교량이 있는데 제방 위에도 교량을 얹어 놓고 연결도로, 접속도로가 없음. 국토교통부 산하에서는 하천 교량만 책임지기 때문임. 오로지 국토 교통부는, 정부에서는 제방에 다리만 놓는 것임. 그래서 접속도로를 고려하지 않은 다리, 그건 다리를 위한 다리지 인간을 위한 다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정부에 건의 해 주시기 바람.

그 다음에 정부의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20억 이라면 최소한 25%에 해당하는 4억 정도는 접속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봄.

A4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과 관련해서 교량 놓는 거는 방재청이나 안전처와 같이 하고 있고 사업을 사전에 관련 기관과 향후 연결도로에 대한 협의를 했을 것임. 그런데 부처별로 시차적인 게 있는데 교량이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개설을 하고 향후 논산시에서 접속도로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됨.

Q5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제일 무너리 역이 KTX역사 중에는 공주역임.

1년에 십몇만명 수송한다는 부산 · 울산 · 광주같은대도시로 치면 열흘분도 안 되고 있음. 또 세종시에 편입된 산림연구소는 매년 몇 백 억 씩 투자되어 관리 · 유지하고 있음. 그다음에 우리 남부지방은 다 인구절벽을 우려하는 낙후지역임.

KTX 주변 도로망을 정비하자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고 있음. 두바이의 국제공항이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월드컵 유치한 것처럼 4차 산업이니까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울 수도권보다는 거기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강대도 있으니까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통해 그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되는데 지사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A5

논산시와 도의 광역발전계획에서 상월지역이 향후에 좋은 발전 동력을 얻는 길을 찾아보도록 더 노력 하겠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걸맞은 지역 발전의 어떤 동력을 마련해 보자는 제안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음.



정광섭 의원

Q1

77번국도 안면도 구간 4차선 확장 때문에 작년 3월에 도정질문, 지난 7월에는 5분발언을 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으나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봄.

물론 10년, 20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지만 안면도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임.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이면 보령~안면 간 해저터널이 4차선으로 개통이 되고, 안면도 다리 건너 북쪽으로 태안에서 연륙교까지 4차선이고 안면도 구간만 2차선인데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 5분발언하면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으로 지사님이 직접 답변 바람.

A1

의원님 걱정말씀 잘 기억하고 노력하겠음. 그리고 도에서 그동안 태안과 안면도를 향해서 전임 지사님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됨. 지난해에는 우리가 지방도 603호를 국지도 96호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하였음. 앞으로 지금 현안사업인 77호 국도에 대한 확장사업도 그렇게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림. 지역 발전 위해 조금 더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림.

Q2

태안군 농업용수 증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 올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진다고 함.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 판매라도 잘 돼서 농산물 가격이라도 잘 받아서 정말 노력의 대가라도 나와야 되는데 농민들이 농사짓기도 힘들고 어렵게 농사지으면 농산물 판매도 잘 안 되고 농산물 가격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올 같으면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고 있음.

그래서 물 걱정이라도 안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해줘야 되고, 판매 같은 경우 농협하고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됨. 태안군은 4면이 바다이고 간척지가 많아가지고 늘 가뭄 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태안군에는 수온이 부족해서 올해도 지하수 개발, 하천 준설, 저수지 준설들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음.

우리 지역에는 늘 염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던 B지구 부남호가 있음. 지금 현재 부남호는 만수위가 돼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물이 염도가 높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그래서 오늘 B지구 부남호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함. 그래서 물이 왜 째지에 대해서 염도가 왜 자꾸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말씀드리고자 함.

A2

최근에 한 20년 전에 바닷가를 막아가지고 논을 만들었으니 물에 째기가 늘 배어있다고 생각됨.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를 세워서 원인을 더 찾아보겠음.

Q3

제작년에 도정질문한 부분이 A지구에서 B지구로 물 퍼내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음. 염도 차단만 해주고 A지구에서 B지구로 물만 흘러보내고 있는데 올해 A지구는 굉장한 가뭄과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음.

사실 수량이 충분해 가지고 물을 많이 천수만으로 방류도 함. 그 물들을 B지구로 퍼 넘겨주면 우리는 그 물을 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했다가 안면도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소원·근흥 이쪽으로도 관로 통해서, 태안 쪽에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 관로를 통하면 도로 통하면 얼마든지 각 8개 읍·면에 물을 보낼 수 있는 관로 사업을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태안군은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임. 4대강 사업을 해놓고 많은 문제점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물이 거의 다 보니까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 어쨌든 올 가뭄에 그 물을 잘 활용한 것도 사실임.

그래서 물만 막아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북부 쪽, 태안 쪽도 증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어민들이 물 걱정 않고 농사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A3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주요 수계 연결사업은 계속해서 추진 중인데 걱정은 있음. 수계를 연결했을 때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교란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당히 사실상은 가뭄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해놓고도 걱정임. 그래서 지금 현재 보령댐에다 연계된 도수관로와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그리고 나서 아산, 삽교, 대호, 그리고 나서 AB지구에 대한 수로 수계 연계사업들을 하고 있음.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음. 최근에 정부안으로 채택이 돼서 이번 가뭄기에 이낙연 총리님이나 정부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상의를 해서 “수계 연계사업을 기본으로 해놓아야만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구조적인 가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담아놓았다는 말씀을 드림.

Q4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들, 물 걱정 다른 지역도 내내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물 가뭄면 다 똑같이 가뭄기 때문에 물 이쪽으로 끌어오는 부분도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뭄 대비해서 빗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임. 또한 어떻게 보면 가뭄 대비한 예산이 적음.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제수문을 통해서 차단해 가지고 물 막아놔다가 농업용수로 활용하지는 것으로 예산들을 좀 많이 더 내년에 세워주시기 바람.

A4

지난 3년 동안도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임.



이기철 의원

Q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됨. 그런데 이 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져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15~20일 이면 허가가 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충남도, 시·군은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됨. 태양광 발전 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가지고 행정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도에도 좋고 민원인들한테도 좋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 행정처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A1

마을이나 가정의 에너지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에너지에 대한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어떠한 종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더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의원님이상 상의를 하도록 하겠음.

Q2

현재 충남에는 7,533분의 월남참전전우들이 있음. 이분들이 예우를 받는 것이 서산시가 20만 원, 다음에 당진, 보령, 홍성, 예산, 태안군이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아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시·군이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됨. 뿐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시·군은 각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2

국가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각종,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많은 용사 분들을 잘 모시는 업무를 시·군과 지자체별로 더 열심히 챙기는 것은 권장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며 장차로는 국가가 표준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봄.

Q3

지난 5월 달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송정명 수석께서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고인이 6·25 참전 국가유공자였음. 작고하시기 전에 임실호국원에 “내가 거기에 안장하겠다, 내가 거기로 가겠다” 해 가지고 결정했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반 공원으로 모셨음.

그런데 공원으로이라는 것이 돈을 내야 되지만, 돈 내는 것도 그렇지만 또 15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이장을 해야 됨.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영혼이 떠돌아야 되는데 우리 충남에 호국원을 하나 건립해서 호국영령들이 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3

그것은 예전 2006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한번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무산되었음. 이 사업은 국가적 단위의 계획이 필요함.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함. 충남 어디에 입지해야만 충남 분들이 선택을 할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중앙정부의 호국원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음.

Q4

지난 8대, 9대 그리고 10대 제287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으로 제가 문화재청을 8대 때부터 방문했음. 어찌 어찌해서 문화재청 김찬 당시 청장이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현충사에 6분의 1짜리 거북선을 전시한 것은 학술상 거북선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걸 갖다가 전시해 놔는데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원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여기 주위에 임진왜란테마파크 같은 것을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추진해라”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남.

그때 지사님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정부 정책과 잘 맞물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첫 발자국도 못 떴고 있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A4

그 당시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이순신의 역사적 기록들과 아산시의 문화역사관광자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에 저도 동감했을 거라고 생각함.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아산시와 민간투자자들 그리고 테마파크 부지 조성을 위한 그 부지의 형태, 현 상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각각 다 벽에 많이 부딪치는 현상들임.

Q5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가지고 테마사업을 하는 경남 통영, 고성, 충무 등등의 지자체는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음.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2,000만의 인구가 배후에 있는데 또 현충사가 있는데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뿐만 아니라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 아니겠는지?

A5

실물모형의 거북선과 거기다가 의원님 제안은 그것을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까지 제안하신 것이라고 알고 그것이 민자나 상업적 민간투자까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구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와 투자자들 그리고 계획 자체의 부지조성 등 각 각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음.

다른 대안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관련 부서와 더 노력하겠음.



홍성현 의원

Q1

지난 7월 15일, 16일에는 천안 202mm, 아산 136mm 집중호우로 인해 천안·아산 지역의 건물 313동, 농경지 106ha, 축사, 잠사 5개소, 비닐하우스 0.4ha, 기타 387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유재산의 피해액이 20억 9,900만 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196억 7,700만 원으로 총 217억 7,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하지만 안희정 도지사님은 이번 피해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현장에는 7월 7일 하루 오후, 그것도 현장에는 18분 정도 있다가 가셨음. 이것이 생색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지? 이러한 일들만 보아도 지사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어느 지역에서 또다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피해가 발생한 주요원인들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 그리고 하수 및 배수로 막힘에 따른 배수불량 등이라고 판단됨.

하천공사를 해놓고 이후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음. 그런 점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이와 더불어 소하천의 경우에도 시·군에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협조를 통해서라도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증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A1

도지사가 호우, 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잊은 적 없음.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음. 그리고 또한 현장방문 시에 의원님들을 미리미리 연락 못할 때가 있음.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발생 이후에 다른 일정을 급히 조정하느라고 의원님께 연락을 못 드렸음. 그러나 의원님의 지역과 의원님의 지역주민들의 대의 대표자로서 의원님의 권위를 제가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음. 앞으로도 지역을 방문할 때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에 의한 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현장에서 좀 더 폭넓은 지역의견을 지적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피해복구 및 지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신속히 논의를 했고 총리님과 논의해서 초반에는 충북피해만 집중적으로 부각이 났었습니다만, 천안지역의 피해상황도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천안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에도 충분히 설득을 했고 뒤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약 180억 가량의 복구지원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그리고 지방하천과 하천정비, 하천 유지관리, 특히 유지관리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라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올해 1,20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이 중 350억 원이 도비로 하천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오전에 주셨었던 전낙은 의원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 하천정비를 하면서 교량은 100년 주기로 하다 보니 제방 독과 지역 인접도로와 하천정비에 따른 교량정비사업은 계속 서로 불균형 상태가 누적됨.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또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홍성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퇴직 토준설이라거나 수초 · 잡목제거 관리와 같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도 좀 더 신경 써서 예산과 업무를 보아 나겠다는 말씀을 올림.

Q2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교육의 최일선인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러나 최근 충남의 기간제 교사들은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함.

충남의 일부 학교장들이 기간제 교사 채용기한을 좌지우지하면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배제하고 휴직 중인 정규직 교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음.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 201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천안지역은 천안제일초등학교를 비롯하여 70여 건, 충남 전체는 200여 건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다음 계획에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며 눈물을 삼키며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임.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규직 교사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됨. 이에 본 의원은 천안을 비롯한 충남 초 · 중 · 고 교장들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갑질 행각이 도를 넘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교육감님께 제안함.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A2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교원의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도록 적극 권장해 왔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처럼 방학 전에 복직하고 방학 후에 다시 휴직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장 회의 때마다 강조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있었던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은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공문을 다시 학교에 안내하고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송덕빈 의원

Q1

연례행사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구제역과 AI 발병을 살펴보면 우리 도는 2014년 · 2015년 구제역 발병이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당진 · 홍성 등 70건에 3만 728두 발생하여 59억 원, 2016년 천안 · 공주 · 논산 · 홍성에 19건에 2만 2,231두 발생하여 49억 원, AI는 2014년 · 2015년도 천안 · 공주 · 아산 · 논산 · 당진 · 홍성 등 32건에 284만 6,000수에 310억 원, 2016년 · 2017년 천안 · 아산 · 서산 · 청양 · 홍성 · 논산 · 공주 등에 64건에 741만 수에 565억 원으로 그간 4년 동안 구제역과 AI로 인한 손실 금액이 983억 원이나 됨.

이러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담과를 신설하여 예방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 많은 예산 손실은 없었으리라 생각하며 이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실무 과를 신설하여 구제역과 AI의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1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 및 AI 방역은 우리 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 시 · 도와 시 · 군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방역이 필요한 사항임. 특히 철새 분변에 의한 AI 바이러스 유입 시 광범위한 오염으로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 외 지역은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도에서는 농정국과 시 · 군 및 방역단체, 축산농가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구제역과 AI 예방 및 방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Q2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설치기준을 보면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반도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 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이며, 규모별 구분에 의한 소로

3류는 8m 폭 미만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최소 설치 폭은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도로는 도시지역에서 차로의 최소 폭은 3m 이상이라는 규정은 2003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2003년도 당시 우리 충남의 차량 대수는 60만 2,469대였으나, 현재 오늘에 와서는 104만 3,037대로 73%가 증가하였음.

이제는 개인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도로는 주차장이 되었고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누구나 다 알고 겪고 있는 현실임. 또한 도로는 규제봉으로 얼룩져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실무진들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신설도로는 9m 내지 10m 폭의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함. 왜냐하면 일명 소방도로는 화재 시 출동하기 용이하도록 설치된 도로라면 거침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임. 이 안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A2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 8m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에 각종 도시계획 관련자 회의도 있고요, 워크숍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음.

그때 여러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m 이상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음.

Q3

논산시 성동면 원봉지구는 재구역정리 사업을 하였고, 하다 남은 수혜면적 1,167ha에 대한 재구역정리 사업계획은 있는지, 만약 없다면 배수로 9조 약 4km만이라도 구조화 하여 농업인들이 민원 없이 편히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A3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지역은 1990년도에 대구회 경지정리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임. 27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 용배수로 시설물이 노후화된 게 사실임. 따라서 2014년부터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구간 4km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해 보니까 배수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Q4

2016년도 전국체전, 2017년 전국소년체전을 치른 롤러경기장인 논산시 은진면 시모리에 폐교된 시모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때마다 본 의원이 참석해 보니 주차장이 없어 도로 양방향으로 약 300m 넘는 곳까지 주차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음.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A4

우리 도에서 작년, 재작년 진행되었던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에서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는 등 대회 운영에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가 있었음. 내년 5월에는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가 우리 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음. 아울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음.



김종문 의원

Q1

임기제공무원이 얼핏 보면 공무원 같지만 공무원이 아님. 비정규직에도 들지 못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임. 조금 모순되긴 한데 임기제공무원은 우리 정원 총액에 포함되어 있음. 이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총 근무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임. 지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려는 것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들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며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실 수 있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이분들이 고용이 안정돼서 보다 도민들하고 지사님, 행복한 동행 그렇게 가시면 좋지 않겠는지?

A1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떠한 조직이라도 정말 세월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채워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그것이 없으면 조직이 윤택성이 없음.

그런 측면에서 현재 노동시장의 임금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또 시정해야 된다는 게 의지도 분명 합니다만, 그 형태가 모든 고용시장에 무조건 고정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다만 우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기제의 그 직무가 뭘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처럼 상시고용이 필요한 업무들을 그냥 임기제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습니다.

Q2

9월 1일 날 개교로 알고 있는 한들초등학교가 9월 1일 날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A2

공사는 사실상 30일 정도에 끝이 나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식의 문제 또 이른바 페인트칠 등으로 인해서 냄새 제거의 문제로 문을 열고 가열시키는 절차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음.

Q3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아직 일부 보상이 안 돼서 우리가 소유권도 못 갖고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A3

부지매입가가 157억인데 잔금이 50억 남아있고, 현재 107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들었고 6월 2일 매입대금 지급과 더불어서 체비지 매각대장에 소유주를 백석5지구 관리에서 교육감으로 등재했다고 보고를 받았음.

Q4

지금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지 않고 소유권도 우리 교육청 소유도 아니고, 그럼 결국 남의 땅에다가 학교 지은 거 아닌가?

A4

지금 중도금이 107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남의 땅이라고 보시기는 어려움.

Q5

지금 107억이 토지대금으로 갔는데도 소유권조차 이전 받지 못하고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그 땅에 지장물까지 있어서 아직 보상도 이루어져 있지 않음.

이게 정리가 됐으면 교육청으로 소유권도 이전받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7억이나 되는 우리 도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의 땅에다가 학교 지어가지고 개교조차도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A5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없도록 2013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2015년도 중후까지 다 거치고 난 후에 대토지 소유주의 도저히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용지를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너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천안 시민들이 겪은 어려움 또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함.

Q6

지금까지도 우리가 107억의 토지매입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장물 정리도 안 됐고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남의 땅에다가 학교를 짓고 통학로도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미흡한 대처로 예산도 낭비되고 또 앞으로 소유권이 전달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임.

A6

제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거치지 않고 학교용지로 처음부터 확보된 땅들도 전부 3월 1일 개교에 2월 28일까지 공사를 할 정도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일정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음.

학부모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림.

Q7

저도 지역이 천안이고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음.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되도록이면 학생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그런 노력들은 높이 사지만 처음부터 교육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갔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예산을 낭비 하지 않도록 교육감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A7

한들초등학교의 경우는 충남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거고 이 문제에 관해서 타 기관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과 LH 이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강박 이런 것들에 쫓길 수밖에 없었던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프고 답답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아시리라 생각함.



유병국 의원

Q1

지난 296회 정례회 때 천안 청당동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였음. 지난 296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에 현재 약 40% 정도 진행된 119안전센터 공사가 여전히 현재 그대로 머물고 있음. 12월 중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제300회 정례회 때 이 문제로 또 도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꼭 준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A1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Q2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의 선진농업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해외공무 연수를 다녀왔음. 그래서 본 의원이 네덜란드에서 보았던 몇 가지 자료를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음.

조이테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회사를 방문했는데 분뇨를 로봇이 처리하고 착유를 로봇이 하고 있고 사육 로봇은 젖소가 가서 사육로봇에 대면 돌아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런 수출 마케팅 전략을 정비해서 유럽과 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임.

다음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토마토월드라는 첨단 재배시설인데 토마토씨 1kg이 금 1kg보다 가격이 4배 내지 8배 정도 높다고 함.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첨단농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스마트농업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과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A2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 중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관련 전문연구원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겠음. 농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스마트팜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음.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의원님과 계속 의논해 가면서 잘 발전하도록, 다른 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Q3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안지역 수해피해가 많이 났고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농업 재해보험 가입률이 30%밖에 되지 않음.

전체 보험료 중에 국비50, 도비 9%, 시·군비 21% 해서 8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20%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30%인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A3

농가가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을 할 수 있는데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세 가지임. 첫째는 농업재해보험이 1년 만기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또 하나는 자연재해가 부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설마 우리 농가에 재해가 올까' 하는 평범한 생각에서 보험을 꺼리는 경우도 있음. 마지막으로 일정부분은 홍보 미흡으로 알지 못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됨.

Q4

잘 파악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은 일단 이런 농업재해보험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음.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만기 소멸성인데 보험료를 1회납해야 됨. 그래서 홍보와 분담 이 두 가지를 하면 할 수 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음.

A4

농협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가입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음.

Q5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고교학점제 그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A5

어제도 담당 장학관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의 현재 진행속도는 늦는다는것임.

다만 충남교육청이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손을 대서 이것저것 열기설기 열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정식으로 못 드렸고 도의회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만,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는 있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미 충남은 현재 11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올해 시작을 한 것임.

그리고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한국교육 개발원의 예산자원을 받기로 얘기되어서 공모사업인 가칭 미래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 오프라인 쌍방향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 출석하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학교에는 그 교과가 없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9월, 10월 넘어서면서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을 해줄 것 같고 선정은 되었는데 교육부와 교육 개발원 사이에 논의가 완결이 안 되었음.

내년부터는 추진이 될것임. 그리고 충남이 교육부가 얘기하는 지역연계 진로 맞춤형 고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연계라는 말은 특정 시 · 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 · 군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서 현재 논의 단계임.

그래서 이것이 되면 도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추진이 제대로 가속도가 붙겠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부터임.



김홍열 의원

Q1

도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교무행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배치했음.

배치기준을 보면 1명에서 50명 사이에 학교 수가 159개교가 있는데 102명이었고 51명과 100명 사이에는 학교 수가 142개교인데 78명이 배치가 되었고 101명에서 300명 사이는 학교 수 142개교에서 61명, 500명 이상은 192개교에서 32명이 배치가 됐는데 농산어촌 학교부터 행정사를 먼저 배치해 줘야지,

중소도시에 있는 큰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왜 배치해 줄까 저는 그 부분이 참 궁금했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A1

행복나눔 학교를 지정할 때 뭐를 신경 썼느냐면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나눔 학교가 주로 농산어촌에 있음.

Q2

교무행정사 배치기준에 있어서 좀 더 밀도 있게 준비를 해서 농산어촌 학교에다 먼저 배정을 해서 농산어촌에 계신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덜 올 수 있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림.

A2

알겠음.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교무행정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낮은데가 충남이다 이 말씀도 드리겠음.

Q3

도서벽지는 교육부령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농어촌 진흥학교를 아산은 어쩔 수 없지만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4개 군 정도는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농어촌 진흥학교 가산점을 대폭 향상을 해서 도서벽지 라 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배정해 줘야지, 내년도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보면 현행 14년 7개월 걸리는 것이 2018년부터는 19년 6개월 걸림.

그러면 농어촌진흥 학교에 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기피한다는 것임. 농어촌에 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람.

A3

9월 중부터 T/F팀을 가동할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이미 T/F팀 구성을 지시해 뒀습니다만, 재차 지시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음. 다만 현재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이 부분을 다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음. 교육부하고도 상의해 보면서 T/F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음.

Q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에 나와 있는 도서벽지 학교를 지정하는 기준표를 보면 교육부에서 한다고 해도 저는 우리 도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음.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는데 등급을 따지는 것을 보면 학교를 관할하는 구청까지의 거리, 역·시외버스까지의 거리, 면적 비율, 또 포장이 돼 있느냐, 병·의원까지의 거리, 내지는 미용실이 있느냐,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도서벽지를 정함.

교육감님이 T/F팀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교육부에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미용실·대중목욕탕까지 거리를 따지며 차량 보급률을 따지며, 지금 웬만한 학교는 다 스쿨버스 갖다 학생 대 주고 이미용, 웬만하면 시골에서 도시 나가서 다 하고 있음. 교육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불합리하다고 하면 2000년도 1월 28일 날 개정을 했더라고 지금 2017년도가 됐음. 우리 도에서 17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음.

A4

전임 교육감님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년도에 이것에 관해서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 변화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함. 2013년도에 했고 5년마다 실시함.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내년도 대비해서 T/F팀이 상황을 조사해서 교육부에다가 제안을 할 예정임.

Q5

인사문제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도교육청에 14개 교육청이 있고 6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장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본인들이 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함.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가 바람.

A5

현재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학교에 근무하시게 될 때 남은 학교들이 자리가 적절치 않으면 교감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로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분이 해 오신 것이 사실임.

Q6

기관은 다르지만 제가 농경위에 있을 때 도청 산림녹지과에 녹지직 출신들이 있음. 그분들이 서기관이 되면 2년 전후해서 명퇴를 해서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 왜 명퇴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자기 들은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래 앉아 있으면 후배들이 서기관을 달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좁아지기 때문에 2년 남짓 명퇴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고 참 괜찮은 전통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기관장을 하신 분들이 귀감을 보이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학교로 가서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신다면 교육계에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임.

A6

오늘 의원님 제안으로 이런 문화형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김 연 의원

Q1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20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다룬 바 있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재단에서 미디어 전시회 지원사업 비용으로 요청한 4,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되었음.

그런데 확인 결과 본 사업은 지난 3월과 5월 총 3회에 걸쳐 이미 사업을 종료한 상태였음. 3월에 추진한 전시회 지원사업은 의회로부터 승인도, 설명도 의회에 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의회 내에서 버젓이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그 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건지 한심스럽게 그지없음. 문제는 이미 벌어진 상황으로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충남문화재단의 대표는 그냥 방관하는 자세로서 나의 직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다, 파악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대표이사 자리임.

A1

맞는 말씀이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Q2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함. 본 의원이 대표였다면 저는 그렇게 방관하지만은 않았을 것임. 일단 경위야 어떻게 됐던 간에 예산의 집행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 과하고 이미 추진한 사업이니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것임. 그렇지만 13일 상임위는 물론 17일 예결위 계수조정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누구 하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노력도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음.

그래서 할 수 없이 8월 17일 날 서면으로 사업 추진 경위와 예산집행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봤음. 답변은 금년 2월에 A의원이 사업제안을 하셨다고 했음. 문화재단은 1차 전시회를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추진했다고 했음. 추경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이사회를 열었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음.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위반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것임. 재단 측은 본 사업을 5월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추진했다라고 했음. 3월 전시회는 2월 20일 이사회 개최 후에 전시일까지 의회가 열리지 않았음. 그래서 의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음. 그렇다 치더라도 5월에 추진된 2차의 경우는 이사회 날짜를 보니까 4월 21일임. 그렇다면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도의회 회기 중에 얼마든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일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 재단 측은 답변은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절차 정관 제29조에 의거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니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음.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것도 동일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2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Q3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음. 지나간 일이라면 나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조직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A3

죄송함. 차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음.

Q4

이 문제야말로 정말 중대한 업무 방기 또는 업무태만이라고 보고 있음. 기본적으로 본 사업비는 이미 소진해버린 상태이며 또한 추경에 요구한 예산도 이미 삭감되어 버렸음. 그렇다면 올 12월 말에 결산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A4

벼룩도 낫짜이 있는데 재단에서 절차상 회계법상에서 잘못이 너무나 많은데 의원님들께 이 예산을 추경 예산에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차마 올릴 수 없었음.

그래서 사실은 염치불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 우리 재단의 예산 확보에 대하여 상의말씀 내지는 애원 드릴까 생각하고 있음.

Q5

전반적으로 행복키움지원단 같은 경우는 207개 읍·면·동에 설치가 돼 있고 인원은 전체 3,725명이고 예산은 9억 7,000여만 원이 됨. 복지반장제는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만 4,598개의 반이 있고 여기에 인원은 1만 6,116명이고 예산 역시 3억 4,000 정도가 되며 본 의원은 현재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음. 매달 동네에서 발굴한 복지 대상자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어 준다든지 밀반찬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방문해서 빨래나 청소 등의 가사를 돕기도 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이 활동의 재원을 모두 행복키움지원단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임. 공적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A5

복지반장제는 그동안에 복지반장을 위촉하고 역할을 정립하고 또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지만 복지반장제가 정착이 되면 마을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었음.

행복키움지원단이나 복지반장제를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이공휘 의원

Q1

최근 5년간 충남테크노파크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자료를 검색해 봤음. 그랬더니 해당되는 분이 2번에 있는 미준수 사항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음.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인사위원회 문책자 조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문책내용이 “원고로 지급과 관련해서 2013년 12월 26일, 27일 원고로 지급자인 직무관련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작성한 원고로 일부를 고려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여 관련 센터장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주의를 주고 금품수수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했고, 그리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보면 “벌칙 및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있음.

“사업시행자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본 조가 2013년 5월 28일 날 신설이 됐음, 그런데 형법 제129조 그 밑에 수뢰 및 사전수뢰를 보면 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련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그래서 본 조 신설일이 5월 28일인데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12월 26일, 27일 날 발생이 됐음. 규정 적용은 정직 1개월로 처분을 받았음.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전출을 갔었고 이번에 다시 공모작업을 통해서 자동차 센터장으로 선임이 됐음. 관련 법률규정 적용이 누락된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A1

내부 부서장 추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임. 다만 저기에서 “원고로 청구를 요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징계할 때도 그 부분이 검토가 됐었고요 정직처분의 결과가 자격요건에 해당했느냐, 부서장 선임과정에서는 그것이 논쟁이었음.

그런데 부서장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것을 검토하면서 “부서장 신청요건으로서는 적합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추후에 들었음.

Q2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14개 자동차센터 사업임. 그래서 6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거고 8개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 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산자부 산하였다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로 된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들리는 얘기가 현재는 3개 센터 중에서 하나만 뽑는 거고 2개는 아직 산자부에서는 추천 위원도 미정된 상태임. 그런 부분인데 자동차센터 센터장 선임을 좀 강행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A2

그렇게 하겠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테크노파크 업무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고 있음.

그래서 지금 전환기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 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 혁신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어떤 관계를 가질 건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음.

그래서 조만간에 중소벤처 기업과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챙기겠음.

Q3

우리도 내포신도시 실증단지를 통해서 안정성하고 기술개발을 해 가면서 또 다른 일자리창출과 우리 도에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수소에너지가 붙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기술도 개발하고 보호할 겸 선도적으로 수소와 관련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실증단지를 통해서 관광상품과 충남개발공사의 또 다른 매출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하는데, 실장님, 본부장님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A3

저희들도 같은 생각임. 다만 실증과 인증이라는 선행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은 국가사업 R&D사업으로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음.

관련기관이 에너지 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해당 기관임. 그래서 마그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5kW짜리를 한번 실증사업 R&D사업을 먼저 선행하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자립을 위한, 에너지원 믹스를 하기 때문에 태양광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음.

Q4

지금 해수욕장의 피서인파를 추계하는데 기존에는 페르미 추정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인구가 늘어나서 해운대에서도 4,800만 명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의 다 왔다 갔다고 하는 소리임.

올해 기사를 보면 '보령머드축제'에 568만이 찾았다고 하고 있음. 2017년도 568만 명에 외국인이 62만 명인데 2017년도 7월에 외국관광객 관광공사에서 관광통계를 잡은 게 100만임. 10명에 6명이 보령에 왔다는 소리임.

이거는 좀 너무 근거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하고 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임.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미래 충남에서는 빅데이터 및 공간정보 관련해서 조례 제정 추진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이 최소한 구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충청남도도 뒤처지지 않고 앞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A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음.



김응규 의원

Q1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을 임기 내에 40% 이상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공공형으로 전환 시킨다고 하는데 충남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람.

A1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79개소로서 이용률은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용률을 올리려면 1년에 91개소 정도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함. 그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음.

Q2

가정어린이집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맞춤형보육으로 인해서 1일 8시간 케어하던 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보육료가 줄어들고 있음.

또 비현실적인 낮은 표준보육단가 산정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 또 공공성 확보가 보장된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설 자리가 없음. 이 가정어린이집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람.

A2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에 버금가는 만큼의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차이가 나는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음.

아울러서 보육도우미 1인당 월급의 한 68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보육교직원 1인당 월 10만 원~15만 원, 예를 들어서 원장은 월 15만 원,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담당교사는 13만 원,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담당교사는 10만 원의 교직원 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음.

Q3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중간 형태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30%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음. 교사 처우개선 문제만큼은 자치단체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지 답변 바람.

A3

방법을 찾아보겠음. 현재 지방의 현재 재정 가지고 그 약속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움. 그 약속은 제가 대선후보로서 국가재정을 잘 때 어떻게 짜겠다는 저의 약속이었음.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Q4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로 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얘기 들어 보셨는지? 아무래도 국·공립 쪽이 학부모 부담이 적고 사립유치원 쪽은 부담이 월 1인당 20여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학부모님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하고 사립유치원이나 공립 유치원, 지금 교육의 질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립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월 1만 원 안팎의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만 원 안팎의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됨.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더불어서 사립유치원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람.

A4

공식적으로 2016년 10월 각 유치원의 정보공시 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공립과 사립을 나누어서 판단해보면 교육비지원 쪽은 공립·단설·병설 유치원이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사립 유치원은 30만 4,000원 정도가 매월 1인당 지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음.

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음. 먼저 경제적인 지원 쪽을 말씀드리자면 교육과정 지원비와 방과후학교 지원비가 1인당 합해서 29만 원 또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음.

따라서 교원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교원 처우개선 비해서 교직수당 25만 원, 담임수당 13만 원, 인건비 보조수당에 15만 원, 특히 읍·면 지역의 인건비 보조수당은 또 10만 원 더 해서 매월 처우개선비로 약 53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음.

또 학급운영비는 원비와 비교해서 약간 차등지급을 하는데 학급당 매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따라서 이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음.

또 사립유치원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원들의 학생 교수학습 역량 또는 보육에 관한 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Q5

국·공립유치원에서 전체 원아, 전체 유아에 담당 하는 비율이 한 24%로 알고 있는데 40%로 끌어올리면 14% 정도가 민간영역인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됨.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국·공립화 시킬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우리 충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A5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 하는 형태의 계획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음.

저희들이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원아들의 수요현황 또 인근 지역에 있는 공·사립 유치원 그쪽의 학생들의 취원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립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판단이 설 때에 설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음.



5분 발언

Five-minute Remarks

본회의 2017. 7. 10. ①

장항제련소 굴뚝, 관광자원 활용 주문

짚트랙 및 전망대 설치로
집객효과 극대화 ...

장항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역사성과 생태환경 지녀 ...
자원 대책 강구해야

서형달 의원



금강의 입구이자 끝자락인, 기벌포(장항)는 찬란하게 꽃피웠던 백제문명의 시작이자 종말의 비운을 함께 간직한 역사의 도시이다. 더구나 근세사에 들어오면서, 일제 수탈의 도시로서 최초의 계획도시(30만평)이기도 하다.

또한 2번의 국가 산단이 취소되면서 썰물 나가듯이 빠져 나간 서천군의 현재 인구는 70년대 장항읍 규모와 비슷한 5만 5천 명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그런 외부환경에 의한 도시의 영고성쇠를 목도 하면서도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서천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자괴감과 상실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안사업으로 1조 5천억이 들어간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시설을 건립했으나, 운영 면에서 서천군과 연계가 부족하여 곁돌고 있다. 이는 역대 충남도정이 경제는 북부권, 역사는 백제권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장항제련소는 일제가 대륙침략의 야욕으로 건설되었지만 그를 대표하는 굴뚝 또한 이제는 기능이 정지되어 아무 쓸모없는 축조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남도는 제련소를 소유한 민간 기업을 설득인수해서 금강을 가로지르는 짚트랙 등을 설치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집객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전망대를 설치해 1,500여년전 동북아 패권을 놓고 바로 이 제련소 앞에서 한 · 중 · 일간 벌인 3차례의 해전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개발한다면 이보다 상징성을 가진 장소가 없을 것이다.

또한 유부도는 세계적인 갯벌과 철새도래지로 평가를 받고 있어, 2019년까지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등록된다면, 2011년 모시 짜기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등록에 이어, 일개 시 · 군에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동시에 등록되는 소위 더블크라운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될것이다. 이제 서천은 충남의 끝이 아닌 한국의 중심부라는 관점에서 무궁무진한 역사성과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항에 대하여, 실질적이고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을 당부 드린다.

최근 몇 년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생활용수 분야에 대체용수개발사업, 긴급누수저감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 사업 등에 8개 시·군에 총340억으로 그 중 특별교부세 100억, 재난관리기금 40억, 예비비 18억, 시·군비 182억을 투입하여 대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2017년은 전혀 예산이 없다. 그리고 농업용수 분야에 3개 시·군에 총6억 4천 4백만원으로 그 중 예비비 2억 8천, 재난관리기금 3억 6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2015년도에는 5개 시·군 1,847농가 대상으로 13억 3천 6백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였고, 2016년은 10개 시·군 892농가 대상으로 14억 1백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이런 대책들은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시 상황 모면을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판단 된다. 또한 이런 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즉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가뭄과 같은 최악의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천안에서도 저의 지역구와 12개 읍·면은 심각한 가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속한다. 충남의 서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대청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농업 및 생활용수가 필요한 곳을 사전에 조사하여, 본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본회의 2017. 7. 10. ②

충남도 가뭄 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가뭄 해갈을 위해 대체용수 개발 사업 등 추진하고 있지만,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

광역 상수도 사업 비롯한 사전 가뭄 지역 파악 통해 조기에 예산 투입해야

홍성현 의원



본회의 2017. 7. 10. ③

사유지 지방하천으로 둔갑...보상대책 마련해야

예산과 아산 등 12필지 7054㎡ 등 지방하천으로 무단점유... 땅 주인 억울함 호소

1958년 홍수에 의해 수로 형성됐지만, 국가 하천개발 이뤄지지 않아 무단점유

김용필 의원



충남도는 예산 신암 계촌리와 아산 도고 봉농리 일대 사유지 12필지 7,054평방미터를 지방하천으로 무단 점유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땅은 1958년 홍수로 인하여 수로가 형성되어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졌으며 국가하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남도가 나서기에는 어렵다며 도민의 편에서 펼치는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충남도가 개인땅을 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무단점유한 충남도에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것이다. 지금 봉농천 무단점유된 소유자들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충남도의 책임행정을 촉구 한다. 2010년 제9대 의정 활동을 하며 매달린 것은 내포로 진입하는 첫 관문에 방치되어져 있는 구 충남방적 폐공장문제 해결이었다.

5분발언 도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한 결과 2015년도 12월 구충남 방적 소유주인 SG그룹의 개발구상안이 예산군에 접수가 되었다. 문제는 소유자측은 공장부지의 일부를 상업용과 주거용 전환을 요구하는 등 예산군과의 의견불일치 가운데 소유자인 SG그룹은 보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5만2천여평의 도심지에서 예전에는 작은 면적에서 운영이 가능한 섬유 시설이었으나 지금은 누가봐도 그 땅이 공장 용지로는 맞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지금 충남도내는 9개시 군에 73동의 중단된 건축물들이 있어 우범지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폐건축 등은 예전시각이 아닌 지금 시대의 눈으로 바라봐서 새로운 문화적 공간등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국내외 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은 만큼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5일 도정질의를 통하여 잊혀진 제국 가야제국의 첫 출발지가 이곳 내포의 가야사 주변임을 말씀 드렸다. 지날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잃어버린 가야제국에 대한 지시이후에 해당 영호남 지역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에서 가야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곳 중 한곳인 이곳 내포 가야산에 대하여 충남도가 늦었지만 대처를 해야만 한다. 가야 선조들이 가야산으로 이름짓고 살아온 이곳 예산군을 위시한 내포지역이 가야의 첫 출발지로 복원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역할을 바란다.

본회의 2017. 7. 10. ④

충청남도 복지재단 설립 촉구

광범위하게 난립한 복지 기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분산과 조정 역할 수행해야

충남도 올해 복지 예산 1조 6223억원...
전체 예산의 31.4%에 달하지만,
만족도 낮아

김연 의원



2017년 충남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1.4%로 1조 6223억에 달하고 있다. 예산이 증가하고 사업양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 소외계층의 아픈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어 그만큼 복지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전 A지역의 발달장애인부모협의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지역의 경우는 도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았는데 우리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임의로 단체를 등록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라는 요구는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지원을 받은 타 지역을 고려한다면 제 답변 역시 공색하기 그지 없었다.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준비를 추진하면서 모든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만 추진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충남도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충남도는 안타깝게도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체계성에 있어서 적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저기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기 보다는 몇몇 민간단체나 전문가 개개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장기적 계획의 부재 아래 일관성 없는 복지정책 때문에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전국의 지자체 중 복지재단도 복지연구센터도 없는 곳은 충남도가 유일하다. 이제 충남도는 급변하는 복지환경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올해 안에 준비를 시작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행자부와 협의, 복지부의 허가 등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1년은 족히 걸리게 되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복지재단의 설립이다. 집행부가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본회의 2017. 7. 10. ⑤

도내 유희토지 내 해바라기 식재해야

수려한 경관 이미지 창출은 물론,
씨앗과 기름, 조사료 등 활용도 높아

공기 정화 능력 역시 뛰어나...
해바라기 단지 조성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

이기철 의원



저는 오늘 의정 연수를 다녀온 곳 중 두어 군데를 말씀 드릴까 한다. 연수를 다녀온 곳이 터키, 그리스, 스위스, 이태리 등 넓은 자연 환경을 가진 국가들이라 해바라기를 재배하는 농장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곳곳에 해바라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바라기를 보려는 관광객은 없어 보였으며 꿀을 따는 꿀벌만이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꽃을 구경하기가 힘드니 제주도 유채꽃을 구경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몰려간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유채를 심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나 봄에 한번 유채꽃이 피고나면 경제성이 없어서 처리하는데 힘이 들고 이듬해 다시 또 투자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유채재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바라기 씨는 견과류로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씨에는 45~60%의 기름이 들어있고 여기에 리놀산이 50%이상 들어있으며, 비타민d, ke 등이 포함되어 있고 1정보당 해바라기 씨를 2.5톤 수확할 때 기름을 1.2톤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콩 12톤, 유채 4톤을 생산한 것과 같다고 한다.

또한 해바라기를 2.5톤 수확할 때 꽃판을 1.5톤 수확할 수 있으며 이를 소 사료로 이용할 시 귀밀 1.2~1.35톤과 맞먹는다고 하며 이때 500kg의 씨앗 껍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그리세린 50kg, 에틸알콜 16kg, 효모먹이 100~150kg을 얻을 수 있으며 해바라기대는 펄프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 꿀을 채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내에서는 함안, 태백, 연천, 고창, 제주 등이 해바라기를 식재하고 있는데 파종 시기는 지온이 10도c 이상이면 가능 하기 때문에 4~5월에 파종하고 개화 시기는 7월부터 8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항몽 유적지 1만5천 평방미터에 해바라기를 식재하였더니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23.6%가 늘었다고 한다.

우리도 농업 기술원을 중심으로 시, 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여 도 소유 유희토지와 시, 군의 유희토지를 잘 활용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삼초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안면도 77번 국도가 왕복 2차선인 상태에서 보령~태안간 연육교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교통혼잡을 지적했다. 도의 답변은 보령~태안간 연육교 완공과 연동해서 확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대응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다. 해당 국장도 도로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4차선 확장을 위한 기존 교통량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제 지사님께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된다.

안면도는 77번 국도가 중앙으로 시작되어 끝까지 외길이어서 지금도 주말만 되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안면도는 섬의 특성상 다른 시·군과 읍·면처럼 차가 밀려도 우회할 수도 없고 오로지 77번 국도로만 통행이 가능한 곳이다. 또한 내년 봄부터는 세계튠립 꽃 축제가 안면도 꽃자공원에서 개최된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행복한 소리라고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면도는 근본적인 해결, 즉 왕복 4차선 도로가 필요하다. 지금 안면도 1일 통행량은 2016년 기준 6,400대 이다. 4차선 필요대수는 7,500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1일 통행량 1,100대가 부족하여 4차선 확장사업을 못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의 정치력의 한계와 능력부족이라고 본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보면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가 거미줄 엉키듯 되어 있다.

우리 안면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저 아래 지방이었으면 보령과 연육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안면도 77번 국도 확장 개통 준공식도 함께 할 거라 생각이 된다. 충남도 대한민국이요 다 같은 5,000만 국민인데 왜 우리만 소외당하고 사는지 답답할 뿐이다. 안면도 77번 국도는 보령과 연육이 되면 통행차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여 정체될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생이라도 예측할 수 있다. 국도이기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지사님께서도 대통령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도의 위상이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관련 중앙부처 건의해 안면도 77번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2017. 7. 10. ⑥

안면도 77번 국도 4차선 확포장 서둘러야

비좁고 불규칙 노면 교통체증 및 사고 유발...통계보단 예측에 의한 행정해야

보령~안면 연육교 개통 앞두고 77번 국도 극심한 교통 몰살 않을 것으로 예상

정광섭 의원



우리나라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6개 재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 실물경제 침체 등 위기 때마다 적극적인 신용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지속된 내수경기 침체와 과당경쟁에 몰리면서 극심한 경영난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의 큰 폭으로 인상 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우리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우리 도의 유일한 금융정책 수행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고, 충남신보의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충남신보의 보증지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충남신보에 대한 출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2년 이후 충남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일반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는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보증 출연을 하지 못하고 정부와 매칭하여 햇살론에 대하여만 출연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매년 30억원 수준이었던 햇살론 출연마저 중단됨에 따라 향후 보증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다행히도 충남도 내 시군의 경우는 2012년부터 당진시를 시작으로 충남신보에 대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올해에만 도내 15개 전 시군에서 27.5억원을 출연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또는 중단된 충남도의 햇살론 출연을 대신하여 예년 수준의 충남신보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서민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충남신보에 출연할 것을 충남도에 촉구한다.

본회의 2017. 7. 20. ①

신용보증 재단 출연 확대 · 활성화 해야

도내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에도 내수 경기 침체와 과다 경쟁으로 경영난

충남도 전국 유일 2012년 이후 일반 출연 멈춘 상태...인근 충북, 대전 등과 대조

김응규 의원



본회의 2017. 7. 20. ②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 존중되어야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규정된
헌법 기관으로 법으로 정해진
업무는 존중되어야

시·도의회와 시·군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것

김종문 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민주기관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는 도지사의 위임사무에 대해 도의회에서 시·군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의회 의원에게 부여해준 고유사무이자 업무이다.

법으로 도의회 의원에게 부여해준 고유사무와 업무로써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 조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30일 공포 되었음에도, 공무원노조와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 장협의회에서 도의 감사를 거부한다면 식발식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도전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고 법의 적용은 상위법이 우선이며 만일 어떤 법률이라도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이며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장군수협의회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거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시·군에서는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민들은 소리없이 지켜보고 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 권한 다툼이 아닌 서로 각자의 위치에 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두눈을 크게 뜨고 최선을 다해 감시해 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한 도민이 주인인 공정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본회의 2017. 7. 20. ③

2014~2015년 보조금 집행 정산 오리무중

보조금 집행 정산 반환금 중
법정 반환 기간 최대 1년 6개월 지났지만,
26억9000만원 회수 못해

보조금 집행 실태 제대로
관리 못한 탓...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시급성 재차 강조

김종필 의원



지난 297회 정례회의 2차 본회의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충남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상에 보조금 정산분이 누락된 결산의 하자에 대하여 말씀 드렸다. 이에 따라, 7월 1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결산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보조금 정산분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회의 사후통제 약화와 재정운영의 성과 분석 허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엉터리 결산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금과옥조 같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보여진다. 서면 질문을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2015년도분 보조금 집행 정산의 반환금중 법정 반환 기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18억5천6백만원이 순 미회수 되고 있고, 2014년도분도 법정 반환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순미회수 금액이 8억3천4백만원으로 2년간 총 26억9천만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거둬들이지 않고 방치하는 충남도 행정은 충격적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2016년도 보조금 정산도 금년 2월말만에 끝내고 보고 완료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2016년도 보조금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답을 못하고 있다.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보조금 집행잔액 미회수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이월 처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과연 정상적인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완료한 보조금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 졌는지 또한 의구심이 커진다.

이것은 결산과정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결산 처리하여 씌운 예산으로 만들어 버린 후, 충남도 차원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앞으로 결산이 완벽하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도의회 기능에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비롯하여 자치입법권과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지난 3년간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비해 재원 부족으로 벽에 부딪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그렇다고 집행부의 예산(안)을 무조건 원안가결을 할 수는 없다. 또한 명백한 진리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결산을 하다보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예산이 이 정도로 허술 하였는가 반성하는 경우도 많고, 집행부 또한 사과하거나 변명하기 급급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한편 예산에 편성권한이 없는 지방의 회가 삭감가능마저 포기한다면 거수기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첫째 사례는 금번 추경에 3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32사단 운동장 트랙을 포장하고 조명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지원 근거로 든 통합방위법 5조에 명시된 시·도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5개 항목을 보면 군사작전이나 작전시설물이 아닌 일반시설물인 운동장 포장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좀 더 확인하고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삭감했던 예산이다. 이런 계수조정이 알려지자 본의원의 팔을 잡아끌며 ‘사단장 전화를 받으라.’고 강요하지를 않나 예결위에 가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의회를 회유와 파괴, 공작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나? 아무리 예비역이라도 예산의 근거와 편성절차를 확인하고 도민이 주라고 할 것 같지 않은 예산을 제 돈이 아니라고 마구 퍼줄 수는 없지 않은가? 두 번째 사례로 이런 한심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험도 있다. 교육위원회는 추경에서 삭감된 20억원이 소요되는 충남 체육과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논산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위원회에 배석하였다.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고 현장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승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쟁점이 예고된 문제의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토론하는 자세가 보기 좋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협치를 하려는 의회 모습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의정활동의 이면에는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와 원모심려가 있었던 것이다.

본회의 2017. 7. 20. ④

충남도 예산안 심의 의결... 의회에 도전하나

추경 통과를 위해 의회를
“회유와 파괴 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장

단순히 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집단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

전낙운 의원



면전체가 석산개발을 반대하여도 해당지역 소수의 가구들만 돈으로 회유하여 몇천만원씩 없어주면 그 어떤 환경파괴 사업도 실시 할 수 있다면 과연 공정사회 인가? 물론 돈의 유혹앞에 넘어간 주민들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해당 몇몇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석산은 이제 너무나 넓어져서 어느 곳에서도 다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미세먼지가 이곳 내포 아니 천안지역 등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물지각한 주민회유 문제가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남도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

평생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오던 농업인들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처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네 사람들간에 아비한 이간책을 통하여 돈으로 충남을 미세먼지 요람으로 만드는 처사에 이제는 충남도가 나서서 막아주기를 목놓아 절규하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석산개발을 하였으면 됐지 또다시 그 몇배를 더 한다고 나선다면 이게 과연 상식 인가? 이 사태까지 오는 동안 환경을 담당하는 충남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대술면 시산리 지역의 석면 검출은 한겨레의 보도에도 나와 있으며, 오랜 석산 개발로 시산리 지역은 대장암 폐암등의 환자가 유달리 많은 지역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충남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나? 이제라도 충남도는 대술면 시산리 석산개발이 미세먼지 온상으로 더 이상 충남도민의 건강을 짓밟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본회의 2017. 7. 20. ⑤

대술면 석산 개발 환경파괴 주범

지역민 건강 위협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주범으로 전락...도 차원 법률적 대책 절실

소수 의견 아닌 전체적인 틀에서
석산 개발 이뤄져야...신속한 대책 마련해야

김용필 의원



본회의 2017.8. 28. 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필요성 제기

전문재활치료시설 찾아 떠도는
재활난민 전략....

재활치료 차별 받아선 안 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기능 포함한
포괄적·전문적 서비스 갖춘
전문병원 설립 필요

장기승 의원



2016년도 충남의 18세 미만 장애 아동은 1,937명으로 주요 장애유형을 보면 뇌병변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가 전체 장애 유형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들은 완치가 불가능한 영구적 장애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장애어린이가 치료는 성장발달의 특성상 성인과 달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병을 치료한 뒤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장애어린이가 재활은 치료적 특성상 사회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서비스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어린이가 재활에 있어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의학과 의사, 음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물리치료뿐 만 아니라 감각·인지 등 정신적인 치료까지 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중증장애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서울에 한 곳만 있다. 충남의 경우는 장애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재활전문병원 자체가 없으며 더구나, 일반병원과 연계하여 장애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전문병원에 입원하려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 입원 후 3개월이 지나면 과잉진료로 분류돼 퇴원해야 하며 통원 치료의 경우 자신의 지역에서 치료할 시설이 없어 2~3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와서 30분 치료를 받고 가는 아이 치료실 근처에 집을 얻어 놓고 엄마와 함께 치료실을 다니는 아이 등 우리 주위의 턱없이 부족한 장애아동 치료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생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들을 지칭하여 이른바 “재활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어린이는 충남의 미래이며 나라의 미래입니다. 특히, 장애어린이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장애아동 치료시설로 인하여 장애아동을 수도권 중심으로 떠돌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과 가족 해체의 위험을 불러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촉구한다.

본회의 2017.8. 28. ②

인도 없는 통학로 해결 위한 정책 제언

천안 두정초와 오성초 등 인도 없는
등·하굣길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개선 시급

현행법상 인도 설치 강행규정 없으나,
정부 지침 보도
최소 유효 폭 2m로 규정

오인철 의원



두정초등학교는 39학급에 학생수 949명, 오성초등학교는 48학급에 1,26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주변에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학교 증축과 함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다. 문제는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차들이 뒤섞여 아이들이 항상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이 등굣길 통학로에 인도가 없으며,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 상 인도 설치에 관한 강행규정은 없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도 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정하며,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2m(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1.2m 이상)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두정초와 오성초의 학교주변 통학로를 살펴보면 인도가 아예 없거나, 국토교통부 지침인 불가피한 보도의 최소 폭 1.2m 이상으로 설치된 인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천안시청에서 두정초등학교 보도 설치를 위해 가예산을 확보하여 보도설치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구간의 토지는 교육청 소유라서 토지사용 승낙은 불가하고 토지를 양여(매매)하여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보도 설치 사업예산을 편성조차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은 절대적인 명제이다. 아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이 함께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전담 TF팀을 운영할 것. 둘째, 충남도청은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기준 1.2m 미만의 통학로 실태점검과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 셋째, 교육청은 행정청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보도설치 최소기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7년 4월 6일 충남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으로부터 도민인권조례 폐지청구가 들어왔으며, 충남의 15개 시·군에서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폐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것일까? 결코 그것은 아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기독교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2장 제8조 인권선언 이행부분이 인권선언 세부내용을 충남도가 만드는 과정에서 성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기독교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기독교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도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라는 내용이 있다. 신약성경 27권 중 많은 곳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것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신 믿음이기 때문이며 그 근거는 바로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음욕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분명 반대하고 있다. 2014년 5월 인권선언문 추진단 발족이 있었다고 하나 그때 충남도 인구 중 20.7%의 주민을 대표하는 기독교 교회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면 이러한 도민들간의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상위법에 성적지위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도민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없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성급하였던 것이다. 이제 기독교 교회 대표들과 보수적 교인들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적지위를 합법적으로 갖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일어설 것이다. 이 문제가 동양적 사상에서도 그렇고 더욱이 성경의 유일신 하나님 말씀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에 충남도와 도의회는 단순히 몇몇 단체의 반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인권선언문 내용에서 성적 부분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회의 2017. 9. 7. ①

인권선언문 일부 조항 삭제 주장

해당 조례 동성에 옹호한다는
개신교 단체 주장 제기된 만큼,
협의 과정 필요

충남도 인구 중 20.7% 개신교인...
선언문 추진단 발족 시
충분한 협의 거치지 않아

김용필 의원



본회의 2017. 9. 7. ②

불합리한 레저세 분배구조 개선해야

천안 화상경마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세입 기여도는 미미

예외 조항 신설로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65%수준 개선해야

오인철 의원



레저세는 1942년 일종의 국세인 마권세로 창설되어 2002년 레저세로 명칭을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레저세의 과세 대상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으로 지방세 구분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징수하여 광역지자체로 귀속하는 보통세(도세)이며, 과세표준 및 세율은 발매금액 기준 10%를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으로 보장받는 법정기관으로 경기도 과천시 본장(경마장)을 갖고 있으며 본장(경마장)이외에 전국 31개 화상경마장에서 연간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이에 따라 레저세 2,654억원, 지방교육세 1,061억원, 농특세 531억원 등 4,246억원의 세금을 국가나 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교통혼잡과 사행심 조장 같은 부작용을 떠안고 인내해야 하는 기초단체에 돌아가는 세금이 없다는 점이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화상경마장에 내는 레저세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로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행 레저세 안분비율은 본장(과천)과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간 외부불경제효과가 유사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소재 광역지자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낮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장외발매소가 도심에 입지하고, 베틱위주 운영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교통 혼잡 및 민원 유발, 주민정서 훼손 등의 사회적비용이 본장(과천)보다 더 큰 실정으므로 현행 레저세 안분비율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소재 기초지자체에 대한 레저세 수혜는 징수교부금 외 조정교부금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상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소재에 따른 직접적 수혜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태안, 당진, 보령 등으로 배분하듯이, 레저세 또한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소재한 시·군(천안시)에 일정부분(65%)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회의 2017. 9. 19. ①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이권개입 논란

주민의 성금을 가지고 장난친 사실 밝혀야...
전시물 뜯어내고 새로운 전시물 보완

기술력 충분하지 못한 업체 공사
말으면서 본래 취지 살리지 못해...
추가 예산 투입 부적절

김종문 의원



지난 9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개관식이 태안에서 있었다. 123만명의 자원봉사자의 노력은 기름으로 오염된 절망의 바다를 다시 생명이 살 수 있는 희망의 바다로 만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오직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닦아내려는 열념은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도 막지 못했다. 그 당시 본 의원도 허리를 펴지 않은 채 기름을 닦고 또 닦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국민들은 한푼 두푼 정성을 보태었고 아이들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와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공들여 만든 전시물을 부러부러 철거하더니 다시 또 예산을 들여 고치는 엉터리 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민들에게 또 다시 절망과 분노를 주는 기념관이 되고 말았다. 당초 총사업비 104억중 건축비가 65억 전시관 시설물이 39억 이었다. 그런데 건축비도 20억이 늘어났고 39억의 전시관 사업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경쟁 업체들의 평균 33억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21억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업자는 21억에 수수 받아 결국 허접한 전시관이 되었고 다시 설계 변경을 통해 혈세 14억을 추경에 반영하여 고스란히 사업비를 보존해준 꼴이 되었다. 기념관 건립 입찰당시 본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들어났다. 결국 설계변경은 없다는 종합건설 사업소 답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지겠지만 순간만 모면하면 끝난다는 안일한 집행부의 사고가 오늘의 이런 결과를 가져온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의회가 무슨 불필요한 요식 기관인가? 이번 공사는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우선 최저가로 낙찰 받도록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업체 이익을 보전해준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만일 부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성금과 도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기념관 사업에 부정할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본회의 2017. 9. 19. ②

충남도 다문화 정책 인식 전환 필요

보여주기식 정책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정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해야

올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
다문화 도민 67명...
충남도 의료관광 전문기관 부재

이공휘 의원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 충남의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수는 14,035명이며 여성의 비율이 88%나 된다. 2017년 6월 30일 기준 충청남도의 인구 및 세대수를 보면 외국인 수는 60,784명으로 충남의 15개 시군 중 서천, 금산, 계룡, 청양외 인구수보다 훨씬 많다. 2015년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기능별 기관수를 보면 충청남도는 7위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충남의 온천 및 스파 현황을 보면 3개 시군에 6개의 시설이 있다. 충남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분석 해보면 주목할 만한 점은 7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이라는 점이다.

보건의학 전공자는 15년도 30%, 17년도는 7.5%밖에 안된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자의 연령, 거주 지역, 취업 현황을 보면 20에서 40대가 97%로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이다. 2016년도 시도별 의료관광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조례 미제정이 3곳(울산,전북,경북)이고 전문기관 부재는 4곳(울산,충북,충남,전남)이다. 특히 충남은 유일하게 2016년도 예산이 없다. 물론, 복지부의 '해외환자유치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2015년 2억원으로 사업을 하였고, 2017년 2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전담팀 이름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전담인력도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충남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결코 타 시도에 비해 뒤지는 상황이 아니다. 다만 사업을 틀어쥐고 갈무리를 할 인력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충남의 다문화정책은 컨트롤하는 인력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외국인 재능의 일부만을 끌어내고 일 년에 한번 입을까 말까하는 전통의상이나 입혀 보는 체험 사업 등을 하고 있었다. 교육받은 인력을 회사와 일대일로 연결하여 수출과 수입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도 고민 해야할 때이다. 시범사업으로라도 고급인력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분리된 시각으로 시혜적인 단발성 정책 아닌 동일한 충남도민이라는 바탕위에 생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도민의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 내는 정책, 다문화 도민의 자아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얼마 전 내년부터 실행되는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 상당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 첫째,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시각장애인 생활적응 훈련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전세비와 운영비다. 갑자기 시각을 잃은 장애인들은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훈련이 일부라도 가능한 곳은 천안에 있는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이다. 그러나 서천이나 태안, 금산과 같이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천안까지 출퇴근 하기는 어렵다. 이에 복지관 근처에 훈련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만큼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두 번째로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수화통역사의 증원을 제안한다. 현재 충남수화통역센터에는 본부장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에서 경기, 전남과 함께 충남이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24시간 365일 수화통역 서비스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사람의 인력 배치가 충남 농아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의 폭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다. 얼마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인데 10명의 장애인을 원장과 한명의 종사자가 돌보고 있다. 그런데 현원이 10명일 경우, 종사자는 원장외에 2명이 있어야 하니 종사자 한명을 더 채용하던지 정원기준에 맞게 장애인 5명을 퇴소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종사자를 한명 더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오갈데 없는 장애인을 퇴소시킬 수도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었다. 사회복지법 제 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같은 내용의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개인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종사자를 증원시킬 수 없고 돌보던 장애인을 퇴소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람 중심의 복지사업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앞서 말씀드린 이상의 사업은 우리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2017. 9. 19. ③

도내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언

시각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수화통역사 증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없애고
사회적 배려 계층의 복지 수요 넓히는
사업 우선 시행해야

김 연 의원



본회의 2017. 9. 19. ④

진로체험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진로체험 기회 확대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상 향상해야

서형달 의원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하여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쳐 달라라는 것이다. 요즘 교육정책 추진상황을 보면 입시중심 교육에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혁신하기 위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지하여 고교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가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폐지는 못하고 입시방편으로 관련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8년도부터 입시시기를 일 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도 없다. “백년지대 계”인 교육정책이 이렇게 반복을 거듭함에 따라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잘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대안이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한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온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충남교육청도 2018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타고 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과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우리 충남에는 자유학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시·군교육지원청별로 1개소씩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는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센터의 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센터의 역할은 학생들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사회 등의 체험처가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컨설팅 해 주고 학교에서는 개발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꿈길’이라는 전산시스템에 탑재하는 아주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타시·도의 각 시·군·구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년 단위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충남의 현행 시스템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 안희정 지사님과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자유학년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확고하게 센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촉구한다.

본회의 2017. 9. 19. ⑤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유관기관 MOU체결 제안

지상군페스티벌 주최측 대형외식업체와
일방적 계약 체결...지역 상인 반발

일방적 축제 개최 지역 경제 활
성화 걸림돌...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야

김원태 의원



국군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국군의 날이 제정되기 전에는 각 군마다 창설일을 자체적으로 기념했으나 1956년 국무회의에서 종래 군별 기념일을 10월 1일로 통합하여 국군의 날로 제정한 것이다. 그 동안 국군의 날 행사장소를 보면 2008년도에는 서울 잠실운동장(1회), 2010년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1회), 2003년과 2013년도에는 성남시 성남공화(2회)에서 개최하였고 계룡시 계룡대의 경우 2001~2002년, 2004~2007년, 2009년, 2011~2012년, 2014~2016년 총 12회나 개최 하였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건국 제69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국군의 날 행사를 오는 9.28(목)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행사임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도내지역에서 개최하던 대규모 행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개최 할 경우 사전에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2017년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는 15회를 맞이하는 군의 대표행사로 행사기간에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는 최대 규모의 군문화축제로 특히 2020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행사이다. 그러나 행사주최 측인 군에서는 업체선정을 대형외식업체와 일방적인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공정하고 선의적인 업체선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군과 계룡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임을 고려한다면 지역 시민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군의 긍정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 군의 위상과 평화수호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과 관, 군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도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업무협약(MOU)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바,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 부탁드린다.

본회의 2017. 9. 19. ⑥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드론 통해 실현해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각...
드론 농업 방제, 비료살포 등
대안으로 떠올라

이미 전남과 강원도 등 4차산업혁명
발맞춰 드론 활용한 육성 계획 등 세워

김명선 의원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정복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드론의 장점은 방제, 비료살포, 파종부터 직파, 작황예측까지 다양한 농업분야에 활용가능하다는 점이며 특히 농약 살포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존 광역 방제기나 무인헬기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입비용만 놓고 봐도 무인헬기는 한 대당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이지만, 드론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뿐 아니라 운용법 및 유지보수 비용도 적다는 것 역시 드론의 장점이다. 반면 작업 효율성은 뛰어나 1일 작업량 측면에서 무인헬기에 뒤지지 않는다. 농업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성은 이미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작황확인, 파종, 관개까지 농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 되고 있다.

이젠 우리 충남농업에 드론 확대 및 보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이다. 충남에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몇 달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물꼬를 터야 한다. 2017년 1월 1일 기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농업용 드론은 18개 업체 20개 모델이 있다. 올해 전남은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농업분야에 확대·접목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방제사업에 도입한 대규모 드론 시범 사업을 시행했으며 내년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충남은 전남 경북에 이어 2016년 기준 215,000ha의 거대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농업분야의 4차 산업화와 그 활용의 정도가 충남의 미래 발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충남도와 15개 시·군 그리고 산하기관은 더욱 적극적으로 드론 보조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농업혁신의 일환으로 드론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급하여, 농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린다.

마을 어른들은 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년 최소 5달 정도를 에어컨을 가동을 하지만 정작 에어컨을 구입 하고 난 이후로 전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는 에어컨을 설치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 및 먼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 5,670개의 경로당에는 6,645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4년부터 금년까지 1,869대의 에어컨을 구매하여 경로당에 지원을 했다. 또한 도내 1,919개의 어린이집에도 5,891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2014년부터 금년까지 1,100대의 에어컨을 구매해서 쓰고 있다. 그러나 청소 및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청소 하도록 하면 청소가 잘 이루어 지겠는가? 불행한 사실은 에어컨을 청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곰팡이, 먼지들이 가득한 에어컨에서 내보내는 공기를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대로 마시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에어컨 구매를 위한 예산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 이후 청소 및 관리는 자체적으로 각자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우리 부모님, 자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분들의 건강과 직결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어컨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3년에 한번 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 140개원과 도내 학원과 교습소 3,800개원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

본회의 2017. 9. 28. ①

경로당 및 어린이집 냉난방기 관리 부실

일부 경로당 10년 이상 필터 교체 하지 않아...
곰팡이와 세균 등 건강 위협

천식과 아토피 등 그대로 노출...
냉난방기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 촉구

홍성현 의원



본회의 2017. 9. 28. ②

끝나지 않은 유류피해... 해결책 촉구

예비비라도 사용 밀려오는 기름덩어리
원인 분석...하루빨리 기름 문제 해결해야

지역발전기금 49% 결정, 지역민은
2007년 유류피해 생계비 지원 수준
70% 기대 허탈

정광섭 의원



지난 9월 15일 유류피해 10주년 기념행사와 유류 피해극복기념관 개관식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였다.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린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행사였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다.

우리는 10년 전 기름 유출사고를 먼 옛날이야기처럼 잊고 있다. 바로 지난 6월말에서 7월 중순까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기름덩어리들이 매일 계속 떠 밀려와서 개장을 앞둔 주민들이 얼마나 속 터졌겠는가? 매일 주민들과 각 사회단체들이 기름덩어리 제거하느라 많은 시간과 그 무더운 날씨 속에 고생들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방송과 뉴스채널방송에 나와 역대 최악의 피서객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생계가 어려운 실정까지 와 있다.

우리 태안군은 크고 작은 해수욕장 31곳과 41곳의 항·포구가 있는데 관광객이 없다면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또한 이런 피해 속에 삼성에서 출연한 기금 역시 11개 시·군에 선심 쓰듯이, 이웃집 이사오면 떡 돌리듯 배분 한 것 같으며, 최대 피해지역이고 기름, 타르 덩어리들이 해안에 떠밀려 오는 태안군에 49%가 왜 말인가? 2007년 유류피해 당시 생계비 지원도 태안군 70% 나머지 30% 가지고 다른 시·군 배분했다.

충남도에서 생계비 70% 주었는데, 삼성기금은 49%로 확정 된 것에 대하여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뭘 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태안군민들은 최대 피해규모가 있었으니 당연히 70%는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49%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다.

이제 태안유류피해 같은 사고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사고후 1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기름 덩어리들이 해안가로 밀려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기름덩어리들이 어디서 밀려오는지 하루빨리 예비비라도 사용하여 원인분석을 해주시고 더 이상 타르가 태안해안에 밀려오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여 태안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곡히 촉구 드린다.

본회의 2017. 9. 28. ③

충남도 각종 행사 내빈 초청 등 세밀해야

유류피해 10주년 행사 치르면서
당시 타르 제거 앞장 선
주요 인사들 명단 빠져

역사 시작의 순간이 누구인지
바라보는 바른 인식 필요...세밀함 당부

김용필 의원



10년전 발생한 그 끔찍한 악몽을 희망으로 바꾼 국민의 위대한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10주년행사”가 최초 사고 발생지점인 만리포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렸다. 첫날 15일 만리포해수욕장 희망무대에서 열린 10주년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안희정 충남지사,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3천여명이 참석해 유류피해 극복의 바탕이 된 123만 자원봉사자의 협동정신을 기렸다.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날 안희정 지사는 자원봉사자들과 활짝 웃으며 기름유출사고 극복 퍼포먼스를 하였다. 그렇다면 2007년 12월 7일 안희정 지사는 어디에 있었나? 그때 당시 한파가 몰아치던 상황 가운데 검은 타르가 해안선을 뒤덮어 올 때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나? 충남도에는 최민호 행정부지사가 여관방을 2개월 가까이 전전하며 정말 일생일대 겪어보지 못한 일을 이완구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름때 제거 작업을 하였다. 당시 수행비서였던 사람도 충남도 요직에 있다.

10주년 행사에 있어서 왜 그들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당시 태안군수인 진태구 군수는 어떠한가? 문제는 희망을 일구어낸 그 현장에서 진정 그 날을 기억한다면 이 두사람 정도는 초청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최민호 전 행정부지사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아예 초청자 명단에도 빠져있었고, 진태구 당시 태안군수는 초청장 하나 덜렁 보내고 충남도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한다. 역사는 시작의 순간이 누구인가라는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10년의 역사가 다 내가 한 것인 양 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그들이 무슨 훈장과 상을 바라겠는가? 그 퍼포먼스 현장에서 안희정 지사가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했다면 충남도민들은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도지사로 기억할 것이다.

본회의 2017. 9. 28. ④

내포신도시 악취와 주차난에 ‘몸살’

축사 이전 및 폐업 추진 시
일정 비용 지원하는 조례 개정됐지만,
‘감감 무소식’

행정기관 대부분 주차난에 시달려...
옥외 주차장 건립 통해
주차전쟁 막아야

오배근 의원



내포신도시가 많은 녹지공간과 깨끗한 도심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지독한 악취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축산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3월부터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악취 50% 절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포신도시에 진동하면서 ‘저감’ 대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본 의원이 294회 임시회 도정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축사이전 및 폐업이다. 지난 4월, 축사의 이전과 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9년까지 25개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신도시 근접 3~4곳에 대해서만 폐업 보상을 검토하고 있고 이마저도 금년도에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전 및 폐업 보상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과 축산농가에 대한 설득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충남도와 홍성군, 축산농가, 지역주민 간에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는 것이다.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는 신도시 개발 당시 대규모 축사가 인근지역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계획을 조성한 충남도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축산악취 문제에 적극 나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악취해소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 이와 함께 홍성군도 악취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신도시의 또 다른 문제는 주차난이다. 도청은 물론이고 도교육청, 경찰청의 주차장은 온 종일 만차로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주차대란은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예상되었던 것으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했다. 도청과 의회의 옥외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민원인과 장기주차 차량의 공간을 확보하고 도교육청과 같이 민간기업과 주차장 상호 사용 업무 협약을 체결 하는 등 다양한 묘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될 연료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청정 연료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열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교육권을 균등한 교육 즉 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31조 제1항의 내용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교육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특별한 조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제2항부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만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적 교육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학부모에게 부과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의 완벽에 가까운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주에서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약 2조 4천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실제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만3천여명의 고등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입학금 2억원, 수업료 391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18억원으로 총 511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의원은 입학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은 재원으로도 무상화가 가능한 만큼 입학금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과 확대를 통해 충남교육청이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회의 2017. 9. 28. 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앞장서야

입학금 면제부터
단계적 확대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충남이 먼저 나서

오인철 의원



현장의정

2017 Autumn



01

행정자치위원회

09.20.

공유재산 교환부지 심의 위한 현장방문 실시

부여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 부지 등 2개소...
현장점검 통해 교환적절성 집중 점검



02

문화복지위원회

09.23.

제93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종합상황실에서 업무보고 청취...육상 200m
결승전과 레슬링, 복싱, 태권도 경기 관람



03

농업경제환경위원회

09.21.~09.22.

축산시설 현대화 농장 및 스마트팜 방문

농식품 ICT 융복합 성공모델 주목받는 유일목장 찾아 정보통신 기술 접목 시설 벤치마킹
스마트 팜 농장...시설의 온도와 습도, 햇볕량 등 측정 분석 통해 최적화 농산물 생산 등



04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08.31.

‘서해안의 기적’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현장방문

지속적인 시설물 보강·보완으로 유류피해극복 정신계승 공간으로 유지돼야



05

교육위원회
09.04.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운영상황 점검

섬 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 통학, 근무여건 점검
충남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신축현장 찾아...쾌적하고 안전한 교직원수련원 건립 당부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충문)는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자위, 4차산업혁명시대 부응한 미래형 인재육성 당부

충남도립대, 충남연구원, 테크노파크 등 업무보고...상호 유기적인 협력체 구성 제안
도내 수산대학 설립보다 도립대 해양수산과 신설을 통해 인재 육성 등 나서야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7일 열린 도립대학교 등 소관 업무보고에서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운영실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인재 육성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계획대비 추진성도가 미흡한 시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충남연구원, 테크노파크, 도립대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김종문 의원은 “충남산학융합원 호서대 기숙사와 충남도립대 증축기숙사와 비교해 보면 평당 건축비가 약 220만원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타 대학 기숙사 건축비보다 건축비가 많이 부풀린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제기했다. 유익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도립대에 해양수산학과 신설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며 “도내

제3공간에 수산대학을 신설하는 것보다 도립대에 해양수산과를 설치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공희 의원은 “호서대의 경우 기업체와 연계를 통해 장학금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도립대에서도 기업체와 연계하여 장학금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필 의원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립대에서도 자치행정학과 등 공무원 양성학과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특화된 학과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도립대 등 상호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충남도의회 문복위, 관광산업 발전 방안 모색...현장방문

경기도 스타필드하남과 생태수목원, 광명동굴 찾아 벤치마킹
유휴시설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시킨 광명동굴과 복합 체류형 테마파크 감탄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방문길에 올랐다. 문복위는 7월 13일과 7월 14일 양일간 경기도에 위치한 스타필드하남과 생태수목원 화담숲, 광명동굴을 차례로 찾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내 최초 쇼핑과 문화, 레저, 위락, 관광, 힐링의 복합 체류형 쇼핑 테마파크 사례를 살피고, 도내 관광·쇼핑 시설에 접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유휴시설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시킨 광명동굴의 희귀성과 문화예술 콘텐츠 등 창조문화를 몸으로 익혔다.

정정희 위원장은 “스타필드의 경우 1조원이 투자된 대규모 복합

시설로, 아쿠아필드와 스포츠몬스터, 영화관 등으로 구성됐다”며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단지 내에 이러한 복합체류형 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열 의원은 “서비스 공간에서 위락, 관광, 힐링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며 “레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신개념 놀이터가 도내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길행 의원은 광명동굴을 찾은 자리에서 “1972년 폐광된 이후 40여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던 동굴이 관광명소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연간 1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등 폐광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은 우리 충남이 배워야할 점”이라고 제언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6차 산업의 메카' 친환경 농공단지 벤치마킹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와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찾아 6차산업 발전 방향 모색
윤리적 소비 중시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유치 등 농촌 경제 및 주민 복지 향상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친환경 농공단지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를 방문했다.

농경환위와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직원 등은 지난달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와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등을 찾아 6차산업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된 이른바 '6차 산업화'의 성공사례를 충남도에 접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인 아이쿱 생협이 5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4월 구례군 용방면 일대 14만9000㎡ 부지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친환경 농법으로 수확한 우리밀과 쌀 등을 원료로 라면, 빵, 케이크, 막걸리, 떡 등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농경환위와 직원들은 라면공방과 만두공방에서 우리밀로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견학하고 영화관과 소규모 공연 무대를 갖춘 비어락하우스도 방문했다.

농경환위는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농촌 경제 발전뿐 아니라 주민 복지나 문화생활이 더불어 향상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511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농산업 분야 청년 고용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했다.

강용일 위원장은 "자연드림파크가 성공을 하면서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문화, 복지, 농업 등 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원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꼽히던 구례군은 이곳에서 크고 자란 젊은이들이 대부분 타지로 떠나고 있었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청년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례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문규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식품 제조를 러스터를 조성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라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식품을 제조부터 판매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식품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도내 6차 산업 기업에 접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국 의원은 "펜션, 기숙사, 공방, 커피숍, 극장, 레스토랑, 비어락 하우스까지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단순히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공방에서 아이들이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드는 것에서부터, 영화관, 레스토랑, 숙박 시설까지 고정관념을 깨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아이템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한편 농경환위 위원들은 이튿날인 9월 1일 전국 조림사업장의 성공지로 불리는 축령산 휴양림내의 편백나무 숲을 찾았다. 자연림이 2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조림 숲이지만, '치유의 숲'으로 불릴 정도로 전국 최대 편백나무 조림지로 유명하다. 김복만 의원은 "단순히 편백나무만 많이 심은 숲이 아니라, 10.8km의 임도를 중심으로 숲길 등 6개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며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규 의원은 "편백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향에 취하며 호젓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숲속 도서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해소위, 교통 및 사회적 약자 위한 예산 확보 강화해야

국토교통국 소관 2017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국비 확보 노력 당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7월 11일 열린 국토교통국의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교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맹정호 위원장은 “주거급여사업에 대한 국비 31억 9604만원,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 6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500만원 등 고령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 감액됐다”며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의원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3억 313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5억 1227만원이 감액됐다”며 “예산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치연 의원은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

조개선 사업 예산이 5억 4000만원 감액됐다”며 “향후 사업 추진 및 개선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이환 의원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 5억 6784만원이 감액됐다”며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성현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3억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비 5486만원이 감액됐다”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변화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찬중 의원은 “새뜰마을 환경개선 사업비가 부여 10억 2800만원, 노산 8400만원 감액됐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한 지역의 생활 인프라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충남 평생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 특성지역 편중 해소대책 세워야

12개 직속기관 추진상황 보고 ...
내실있는 평생교육 운영 위해 교육경비 확보 노력해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7월 14일에 열린 2017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평생교육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오배근 의원은 “평생교육원과 서부·남부평생학습관 등 각 지역 거점의 평생교육기관이 특정 시·군에 편중 설치됐다”며 “일부 지역민만 혜택을 보고 있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각 시·군에 더욱 많은 교육경비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며,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인접 시·군의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낙구 의원은 “학생임해수련원의 수상수련인력이 현재 8명으로 12명인 적정인원보다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실있는 수상수련활동을 위해 인력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환 의원은 “원어민 강사의 증원과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필 의원은 “질 높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타 기관의 생존수영 방법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며, “학생수영장 시설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도 추경 29억130만원 감액조정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가뭄 긴급대책 및 AI 긴급 방역 등 필수 사업 반영
도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 비롯한 자연놀이플 걸립 등 사업 재검토...예산 조정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7월 18일 열린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총 29억130만원(20건)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이번 충남도 추경 규모는 5조486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1724억6700만원보다 6.07%인 3141억61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가뭄 긴급대책 및 AI 긴급 방역 등 필수 사업이 반영됐다. 또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과 시군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 도교육청과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이 담겼다.

다만, 사업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조정·삭감했다.

상임위별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 소관(13건) 21억

6630만원 ▲문화복지위 소관(6건) 6억7500만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소관(1건) 600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도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비 39억원 중 14억원이 과다계상 이유로 삭감됐다.

또 복지보건국 소관 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자연놀이플 걸립비(설계) 4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이밖에 미디어 전시회 지원사업(4000만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타당성조사(1억원), 지역 인권단체 성장지원(2800만원) 등이 사업재검토 등의 이유로 삭감 또는 조정됐다. 서형달 위원장(서천1)은 “이번 추경 예산심의가 추경에 국한되지 않고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편성방향과 집행계획까지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도정의 정책방향까지 제시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 선임

부위원장에 홍재표 의원 선임...도의원 윤리 및 자격심사,
징계 사항 심사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홍재표 의원을 선임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도의원 윤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정 위원장은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품위를 요구하는 시대에 도래했다”며 “2018년의 경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자의 상, 도민들이 바라는 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심사를 수행하는 사후적 활동에서 벗어나 발생을 억제·예방하는 사전적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미세먼지 저감 특위,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방안 논의

대기오염물질 전국 발생량 중 충남 차지 비율 1위...불명예 극복 위한 노력 경주해야
대기오염 효율적 감축 위해 질소산화물, 제조업 연소 먼지 배출 등 전략 세워야



충남도의회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는 9월 6일 특위의실에서 대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방안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이날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과 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비전 및 방향 등 현황을 청취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국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 발생량(168만 1260톤) 중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만6272톤(16.43%)으로,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다. 충남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보면 에너지산업 연소가 38.2%, 제조업 연소가 30.3%, 이동오염원 17.7%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이동오염원의 질소산화물, 제조업 연소 등 먼지 배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중앙정부 추진계획과 연계해 대기질 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배출허용 강화 추진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인체 유해도가 높은 PM-2.5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표 위원장은 “아직 대기환경은 도민이 바라는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등의 저감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신도시 열병합발전시설 공사 중단 촉구

제2차 회의 열고 신도시 열병합발전 시설...
지역민 건강 악화 등 우려 표명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이종화 위원장)는 7월 1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신도시 열병합발전 시설의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내포특위는 이날 충남도로부터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진한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내포특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대다수 지역민이 폐비닐 등을 태워 만드는 SRF 연료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시설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내포특위 위원들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미흡한 사업의 경우 조기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신도시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제문화유적세계유산확장등재및문화관광활성화 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백제문화유적 확장 등재 특위, 백제문화유적 현장방문

공주 공산성, 부여 능산리사지, 전주 한옥마을 등 찾아 문화재 보존 관리 현황 점검
국가 이미지 제고, 경제적 가치 상승 등에 큰 도움…백제 재조명 위해 노력할 것



충남도의회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9월 4일과 9월 5일 이틀간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 등을 찾아 문화재 보존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백제역사유적지구 현황 청취와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활성화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위는 첫날인 9월 4일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사지 등을 답사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유산을 지키기 위한 개괄적인 관광 관리 계획과 각 유산에 대한 방문객 관리 방안 완성을 주문했다. 또 고분 내 벽화 상태와 내부 환경 변화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위는 이튿날인 9월 5일에는 전주 한옥마을과 왕궁리유적 답사 및 전시관, 미륵사지 등을 벤치마킹했다.

유찬중 위원장은 “미등재된 백제유산의 세계유산 확장등재는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백제 유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추가 등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와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백제 문화가 세계인으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 09. 05.

의원주장

김종문 의원



김종문 의원, 도교육청 오성고 부지 매입 특혜 의혹 제기

**송유관 매설된
2억 8200만원 맹지를
7억 7000만원에 매입...
이후 방치**

충남교육청이 천안
오성고 부지를 매입
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
종문 의원(천안4)은 지난 9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 도교육청에 수사의뢰를 촉구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성고 운동장과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2015년 5171㎡의 땅을 17
억46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5년 매입한
오성고 부지 일부 필지는 재산 가치와 활용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매입한 5개 필지 중 3개 필지는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
(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
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활용하려면 10억 원 이상을 들
여 옹벽을 쌓고 축대를 쌓아야 하는 등 이중, 삼중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또 있다. 5개 필지 중 송유관이 매설된 2
개 필지는 경매에서 1년간 유찰되다가 청구가의
37%인 2억 8200만원에 낙찰된 땅이다. 이러한 땅
을 도교육청은 7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
됐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
의 가격이 적정한지, 환경에 영향을 없는지 검토한
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했다"며 "5개 필지 중
두 필지는 모두 길이 달을 수가 없는 맹지이다. 건
축행위가 안 되는 땅을 4억 9000만원의 차액을 주
고 매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 09. 13.

의원주장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 도내 축제 · 행사장 입장객 부풀리기 심각

**대부분 페르미
추정법 적용...
모바일 빅데이터 적용과
많은 차이 보여**

충남지역 각종 축
제 및 행사장의 입장
객 부풀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 대부

분 지자체 등이 축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피서객
수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인데, 이를 개선할 시스
템 및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은 9월 13일 보도자
료를 통해 "각종 축제장의 관광객 또는 피서객 부
풀리기 통계는 지자체의 올바른 관광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령머드축제의 경우 지난해
4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727억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페르미 추
정법'을 적용한 집계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해수욕장 특정지역(가로 30m×세로
20m) 내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 수를 계산해 전
체 면적만큼 곱하는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피서
지 상황을 모바일 빅데이터를 통해 적용·분석한
결과, 축제기간 실 방문객은 30만9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50.1%) SKT가 가입자에 보정계수를 적
용하여 수치 및 통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페르미
추정법'과 '모바일 빅데이터' 간 관광객 집계 수치가
무려 13배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올해만 보더라도
보령머드축제 기간에 피서객 568만명, 외국인
만 62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의하면 7월 한국을 찾은 외
국인 관광객수가 100만명에 불과한데, 10명 중 6
명이 보령을 찾았다는 통계는 문제가 있다고 이 의
원은 꼬집었다.

홍재표 의원, 화력발전소 주변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된다

**관련 예산 확보 위해
크게 기여...
올해 44개교 446학급
공기청정기 설치기로**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은 올해 화력발전소 주변 학교 교실에 각각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사업비 8억9200만원(도·지자체 각각 35%, 교육청 30%)을 편성, 주변학교 44개교 446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연내 설치기로 했다.

이처럼 홍 의원이 앞장서 관련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린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연기가 화학물질로, 학생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도의 경우

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이 전년보다 3%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심각한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공기청정기를 학급 내에 설치한 학교와 아닌 학교에서 많은 변화가 발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학급 내의 총부유세균을 측정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학교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화력발전소 주변 학교에 대한 대기질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 09. 25.

의원주장

홍재표 의원



윤석우 의장, ‘도시-농촌’ 공동체 활성화 이끈다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폐교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
예산 확보 ...
도농교류 확대의
장 마련**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일원에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이 조성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공주1)이 관

련 사업비 확보에 크게 기여한 덕분인데, 당장 세종시와 대전시 등 인접 대도시의 접근성을 살린 ‘도시-농촌’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월 26일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에 따르면 공주시 계룡면 중장초등학교를 활용한 휴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억원(도비19억, 시비 19억)의 사업비를 투입, 폐교를 활용해 휴양·치유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체험장과 이주주택 정비 및 정주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도농교류 확대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본사업이 본격화하면 폐교 리모델링을 통해 체육시설과 주민소통센터를 구축하고, 휴양 및 식물을 이용한 치유 농장이 조성된다. 또한 중장 온천족욕 체험장 설치와 갑사천 산책로 등 다양한 체험장이 마련된다. 이밖에 주택임대용 빈집 수리는 물론, 쉼터와 공용주차장을 갖춰 누구나 체험과 휴양을 오고 싶은 마을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윤석우 의장은 “공주시는 인구축소가 가장 심각한 고착형 지역이라는데 이견이 없다”며 “이 중 계룡면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22.8%에 달하는 인구가 감소했다. 노령인구비율 역시 30%에 이르면서 생산가능인구비율과 여성인구비율은 하위 50% 이하인 지역으로 손꼽혔다”고 설명했다.

2017. 09. 26.

의원주장

윤석우 의원





제 297 회 임시회 주요안전 처리현황

조례안 8, 동의안 2, 예산안 2, 결의안 2, 기타 1 / 원안가결 13, 수정가결 2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기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 가결	· 감사시기 :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 감사기간 : 2017. 11. 7. ~ 11. 20.(14일간) － 제300회 정례회 개최 : 2017. 11. 6.(월)																																																																			
조례안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중문 의원 김석곤, 김동욱, 유익환, 김종필, 김용필, 유찬중, 정정희 의원	원안 가결	·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이 10분의 6초과 금지 신설 －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위촉 제한 － 회의록 작성 및 공개토록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 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위원 20인 이내, 임기 2년)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내용 정비 － 가족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 지급(별표 7) : 월 27만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업무수당 규정 삭제																																																																			
조례안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회계법, 제정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정비 － 지방재정법 제91조 → 지방회계법 제46조(안 제3조)																																																																			
동의안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 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사전 동의 －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455백만 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 동력분야 과제 발굴·기획 지역사회 체육활동을 위한 충남TP체육시설 조영탑 설치 － 사)충남산학융합원 출연 : 300백만 원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및 취업지원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단위 : m², 천원) <table><tr><th rowspan="2">연 번</th><th rowspan="2">회계별</th><th rowspan="2">안전명</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재산현황</th><th rowspan="2">비고</th></tr><tr><th>종류</th><th>수량</th><th>면적</th><th>재산가액</th></tr><tr><td rowspan="2">1</td><td rowspan="2">일반 회계</td><td rowspan="2">보령 무궁화 수목원 조성 사업관련 도유·시유재산 교환</td><td>취득</td><td>토지</td><td>1필지</td><td>3,000</td><td>47,100</td><td rowspan="2">등가 교환</td></tr><tr><td>처분</td><td>토지</td><td>1필지</td><td>6,312</td><td>13,886</td></tr><tr><td rowspan="2">2</td><td rowspan="2">일반 회계</td><td rowspan="2">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관련 도유·시유재산 교환</td><td>취득</td><td>토지</td><td>1필지</td><td>223,934</td><td>662,844</td><td rowspan="2">등가 교환</td></tr><tr><td>처분</td><td>토지</td><td>1필지</td><td>8,000</td><td>896,800</td></tr><tr><td rowspan="2">3</td><td rowspan="2">특별 회계</td><td rowspan="2">충남 소방복합시설 건립</td><td rowspan="2">취득</td><td>계</td><td>2건</td><td>404,590</td><td>48,490,000</td><td rowspan="2"></td></tr><tr><td>토지</td><td>61필지</td><td>385,154</td><td>5,460,000</td></tr><tr><td rowspan="2">4</td><td rowspan="2">특별 회계</td><td rowspan="2">축산물 융복합 전문시험시설 건립</td><td rowspan="2">취득</td><td>건물</td><td>8동</td><td>19,436</td><td>43,030,000</td><td rowspan="2"></td></tr><tr><td>건물</td><td>1동</td><td>4,800</td><td>10,000,000</td></tr></table>	연 번	회계별	안전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일반 회계	보령 무궁화 수목원 조성 사업관련 도유·시유재산 교환	취득	토지	1필지	3,000	47,100	등가 교환	처분	토지	1필지	6,312	13,886	2	일반 회계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관련 도유·시유재산 교환	취득	토지	1필지	223,934	662,844	등가 교환	처분	토지	1필지	8,000	896,800	3	특별 회계	충남 소방복합시설 건립	취득	계	2건	404,590	48,490,000		토지	61필지	385,154	5,460,000	4	특별 회계	축산물 융복합 전문시험시설 건립	취득	건물	8동	19,436	43,030,000		건물	1동	4,800	10,000,000
연 번	회계별	안전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일반 회계	보령 무궁화 수목원 조성 사업관련 도유·시유재산 교환	취득	토지	1필지	3,000	47,100	등가 교환																																																															
			처분	토지	1필지	6,312	13,886																																																																
2	일반 회계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관련 도유·시유재산 교환	취득	토지	1필지	223,934	662,844	등가 교환																																																															
			처분	토지	1필지	8,000	896,800																																																																
3	특별 회계	충남 소방복합시설 건립	취득	계	2건	404,590	48,490,000																																																																
				토지	61필지	385,154	5,460,000																																																																
4	특별 회계	축산물 융복합 전문시험시설 건립	취득	건물	8동	19,436	43,030,000																																																																
				건물	1동	4,800	10,000,000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장기승 의원 이용호, 이진환,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의원	원안 가결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교직원을 보호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과 대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규정 －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토록 규정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교육감	수정 가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과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교육감의 책무규정(안 제2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7조)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가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17.4.25.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정비하기 위함 － 경조사 휴가 의무 승인 규정 (안 제23조제1항) －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관련사항 등 상위법 중목 조항 삭제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 가결	· 2017. 9. 1자로 신설되는 1개교(천안한들초), 2018. 3. 1자로 개원되는 1개원 (천안한들초병설유치원)을 추가하고, 고교 1개교의 교명(운산공고→서산공고)을 변경하며, 기타 지번주소로 된 초 4교, 중 2교, 고 1교, 유 5개원에 대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함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수정 가결	· 총 규모 : 6조 5,557억원(기정예산 대비 5.0%, 3,142억원 ↑) － 일반회계 : 5조 320억원(기정예산 대비 6.3%, 2,970억원 ↑) － 특별회계 : 4,546억원(기정예산 대비 3.9%, 172억원 ↑) － 기금운용계획 : 1조 691억원(변동사항 없음) (단위 : 억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추경 예산안</th><th rowspan="2">구성비</th><th rowspan="2">기정 예산액</th><th rowspan="2">구성비</th><th colspan="2">증감</th></tr><tr><th>금액</th><th>%</th></tr><tr><td>합계</td><td>65,557</td><td>100</td><td>62,415</td><td>100</td><td>3,142</td><td>5.0</td></tr><tr><td>일반 및 특별회계</td><td>54,866</td><td>83.7</td><td>51,724</td><td>82.9</td><td>3,142</td><td>6.1</td></tr><tr><td> 일반회계</td><td>50,320</td><td>76.8</td><td>47,350</td><td>75.9</td><td>2,970</td><td>6.3</td></tr><tr><td> 특별회계(8개)</td><td>4,546</td><td>6.9</td><td>4,374</td><td>7.0</td><td>172</td><td>3.9</td></tr><tr><td> 도청소재도시건설</td><td>47</td><td>0.1</td><td>73</td><td>0.1</td><td>△26</td><td>△35.6</td></tr><tr><td> 안전도관광지개발</td><td>82</td><td>0.1</td><td>82</td><td>0.1</td><td>-</td><td>-</td></tr><tr><td> 의료급여기금</td><td>2579</td><td>3.9</td><td>2445</td><td>3.9</td><td>134</td><td>5.5</td></tr><tr><td> 광역교통시설</td><td>50</td><td>0.1</td><td>48</td><td>0.1</td><td>2</td><td>4.2</td></tr><tr><td> 학교용지부담금</td><td>215</td><td>0.3</td><td>215</td><td>0.3</td><td>-</td><td>-</td></tr><tr><td> 균형발전</td><td>70</td><td>0.7</td><td>460</td><td>0.7</td><td>10</td><td>2.2</td></tr><tr><td>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td><td>877</td><td>1.3</td><td>810</td><td>1.3</td><td>67</td><td>8.3</td></tr><tr><td>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td><td>226</td><td>0.3</td><td>241</td><td>0.4</td><td>△15</td><td>△6.2</td></tr><tr><td>기금운용계획(11개)</td><td>10,691</td><td>16.3</td><td>10,691</td><td>17.13</td><td>-</td><td>-</td></tr></table>	구분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		금액	%	합계	65,557	100	62,415	100	3,142	5.0	일반 및 특별회계	54,866	83.7	51,724	82.9	3,142	6.1	일반회계	50,320	76.8	47,350	75.9	2,970	6.3	특별회계(8개)	4,546	6.9	4,374	7.0	172	3.9	도청소재도시건설	47	0.1	73	0.1	△26	△35.6	안전도관광지개발	82	0.1	82	0.1	-	-	의료급여기금	2579	3.9	2445	3.9	134	5.5	광역교통시설	50	0.1	48	0.1	2	4.2	학교용지부담금	215	0.3	215	0.3	-	-	균형발전	70	0.7	460	0.7	10	2.2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77	1.3	810	1.3	67	8.3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26	0.3	241	0.4	△15	△6.2	기금운용계획(11개)	10,691	16.3	10,691	17.13	-	-
구분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																																																																																														
					금액	%																																																																																																		
합계	65,557	100	62,415	100	3,142	5.0																																																																																																		
일반 및 특별회계	54,866	83.7	51,724	82.9	3,142	6.1																																																																																																		
일반회계	50,320	76.8	47,350	75.9	2,970	6.3																																																																																																		
특별회계(8개)	4,546	6.9	4,374	7.0	172	3.9																																																																																																		
도청소재도시건설	47	0.1	73	0.1	△26	△35.6																																																																																																		
안전도관광지개발	82	0.1	82	0.1	-	-																																																																																																		
의료급여기금	2579	3.9	2445	3.9	134	5.5																																																																																																		
광역교통시설	50	0.1	48	0.1	2	4.2																																																																																																		
학교용지부담금	215	0.3	215	0.3	-	-																																																																																																		
균형발전	70	0.7	460	0.7	10	2.2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77	1.3	810	1.3	67	8.3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26	0.3	241	0.4	△15	△6.2																																																																																																		
기금운용계획(11개)	10,691	16.3	10,691	17.13	-	-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교육감	원안 가결	· 기금 운용계획 변경(신규) 대상교 : 공주봉황초 － 기금 운용액 : 290,917천원 － 자금운용 계획 (단위: 천원) <table><tr><th colspan="4">수 입 계 획</th><th colspan="4">지 출 계 획</th></tr><tr><th>수입항목</th><th>변경</th><th>당초</th><th>증감</th><th>지출항목</th><th>변경</th><th>당초</th><th>증감</th></tr><tr><td>합계</td><td>38,485,463</td><td>38,485,463</td><td>0</td><td>합계</td><td>38,485,463</td><td>38,485,463</td><td>0</td></tr><tr><td>전입금</td><td>10,411,095</td><td>10,411,095</td><td>0</td><td>통폐합 학교지원</td><td>3,415,064</td><td>3,124,147</td><td>290,917</td></tr><tr><td>예치금 회수</td><td>27,568,339</td><td>27,568,339</td><td>0</td><td>예치금</td><td>35,070,399</td><td>35,361,316</td><td>△290,917</td></tr><tr><td>이자 수입</td><td>506,029</td><td>506,029</td><td>0</td><td></td><td></td><td></td><td></td></tr></table>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당초	증감	지출항목	변경	당초	증감	합계	38,485,463	38,485,463	0	합계	38,485,463	38,485,463	0	전입금	10,411,095	10,411,095	0	통폐합 학교지원	3,415,064	3,124,147	290,917	예치금 회수	27,568,339	27,568,339	0	예치금	35,070,399	35,361,316	△290,917	이자 수입	506,029	506,029	0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당초	증감	지출항목	변경	당초	증감																																																																																																	
합계	38,485,463	38,485,463	0	합계	38,485,463	38,485,463	0																																																																																																	
전입금	10,411,095	10,411,095	0	통폐합 학교지원	3,415,064	3,124,147	290,917																																																																																																	
예치금 회수	27,568,339	27,568,339	0	예치금	35,070,399	35,361,316	△290,917																																																																																																	
이자 수입	506,029	506,029	0																																																																																																					
결의안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조이환 의원 정광섭, 이종화, 맹정호, 홍재표, 신재원, 조길행 의원	원안 가결	·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농업과의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휴어직불제, 친환경수산업 직불제, 전통어업보전 직불제 등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촉구 결의																																																																																																				
결의안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종화 의원 김종문, 조치연, 이진환, 유익환, 조길행, 이기철, 조이환, 오인철, 김응규, 김용필, 장기승, 홍성현, 김석곤, 정광섭, 정정희, 신재원 의원	원안 가결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예정인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중 고형 폐기물 연료는 소각시 다이옥신, 중금속 등을 발생시켜 내포신도시는 물론 홍성·예산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이에 SR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 건립 중단을 강력히 촉구 결의																																																																																																				



제 298회 임시회 주요안전 처리현황

조례안 14, 동의안 1, 결의안 2, 기타 5 / 원안가결 20, 부결 1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기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 가결	·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 총 78개 기관
기타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회운영 위원장	원안 가결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및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결의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 위원장	부결	·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인 2020년에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지원, 국비확보, 유관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기반시설 확충, 시설 사후 활용 방안, 참여분위기 조성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자 함
조례안	충청남도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표발의 김종필 의원 신재원, 김석곤, 유익환, 김종문, 이종화, 이공휘, 김동욱 의원	원안 가결	·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기금의 재원 : 일반회계 출연금, 40억 원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기금운용 발생 수익금 등 – 기금의 용도 : 도의 세입 중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 – 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례안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동욱 의원 김종필, 이공휘, 이종화, 김종문, 유익환, 김석곤, 신재원 의원	원안 가결	·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3조) –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
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종필 의원 전낙운, 신재원, 김석곤, 유익환, 김종문, 이종화, 이공휘, 김동욱 의원	원안 가결	·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민간위탁 대상 사무 분야별 세분화 규정(안 제4조) – 자치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되,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매4회차 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연간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 받도록 규정 – 성과평가 사무 중 연간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무는 평가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개
조례안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연 의원 정정희, 윤지상, 김기영, 이기철, 김홍열, 조길행, 김원태, 유병국 의원	원안 가결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등 지원대상 사업 규정(안 제7조) –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년 인구교육을 실시토록 규정(안 제11조)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 연 의원 정정희, 윤지상, 김기영, 이기철, 김홍열, 조길행, 김원태 의원	원안 가결	· 충남 거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토록 규정 (위원 : 11이상~15명 이내로 구성)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토록 규정(도·시·군)
조례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작기구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관광업무 위탁범위 확대 (관광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충청남도관광협의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중화 의원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송덕빈, 유병국, 김복만, 김응규, 홍재표 의원	원안 가결	·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을 대비하고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규정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규정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자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물절약 전문업 등록자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조치연 의원 홍성현, 정광섭, 전낙운, 맹정호, 조이환 의원	원안 가결	· 도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중인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연합회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관련사업 등에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연합회 회원에 대한 교육과 공로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	대표발의 김 연 의원 맹정호, 조이환, 유찬중, 조치연, 정광섭, 전낙운, 홍성현 의원	원안 가결	· 재난상황 발생 시(통신두절) 긴급 구조능력 보강을 위한 아마추어 무선국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교신 훈련 실시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구성·운영토록 규정 (위원: 10명이내)
조례안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9월 중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개관됨에 따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람료 : 무료(안 제5조) －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 : 20명 이내(위원장-행정부지사)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장기승, 이진환, 김용필, 백낙규,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의원	원안 가결	· 인적·물적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확보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함 －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조성 및 시책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 －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교육기부자 협력체계 구축토록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이진환 의원 장기승, 이용호, 김용필, 백낙규,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의원	원안 가결	·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함 － 교복나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 교복나눔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서형달 의원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김용필, 백낙구, 오배근, 오인철 의원	원안 가결	·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 시행 규정 －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 : 11명 이내, 임기2년)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인철 의원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의원	원안 가결	·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교육감과 학교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 － 급식게시판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연1회 이상 실시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원안 가결	· 계획 총괄 － 변경 <table><tr><th>연번</th><th>기관명</th><th colspan="2">면적(㎡)</th><th>기준가격 (천원)</th><th>비 고</th></tr><tr><td rowspan="2">1</td><td rowspan="2">천안초</td><td>토지</td><td></td><td></td><td rowspan="2">'체조전용체육관 개축 ⇒ 천안학생수영장 증축</td></tr><tr><td>건물</td><td>3,146</td><td>9,700,000</td></tr></table> － 취득 <table><tr><th>연번</th><th>기관명</th><th colspan="2">면적(㎡)</th><th>기준가격 (천원)</th><th>비 고</th></tr><tr><td rowspan="3"></td><td rowspan="3">취득 계</td><td>토지</td><td>33,887</td><td>1,820,052</td><td rowspan="3"></td></tr><tr><td>건물</td><td>11,111.63</td><td>26,427,382</td></tr><tr><td>계</td><td>44,998.63</td><td>28,247,434</td></tr><tr><td>1</td><td>가칭 "북부유아 체험교육원"</td><td>토지</td><td></td><td></td><td>유아체험교육원 신설</td></tr><tr><td></td><td></td><td>건물</td><td>2,085</td><td>9,898,111</td><td></td></tr><tr><td>2</td><td>가칭 "충남Wee스쿨"</td><td>토지</td><td></td><td></td><td>Wee스쿨 이전 신설</td></tr><tr><td></td><td></td><td>건물</td><td>2,455</td><td>3,836,268</td><td></td></tr><tr><td>3</td><td>천안신안초</td><td>토지</td><td></td><td></td><td>(기부채납)</td></tr><tr><td></td><td></td><td>건물</td><td>1,697.40</td><td>2,593,003</td><td>초등학교 교실 증축</td></tr><tr><td>4</td><td>인주중</td><td>토지</td><td>28,222</td><td>1,209,035</td><td>(기부채납)</td></tr><tr><td></td><td></td><td>건물</td><td>4,874.23</td><td>10,100,000</td><td>중학교 이전 신설</td></tr><tr><td>5</td><td>면천초</td><td>토지</td><td>5,665</td><td>611,017</td><td>(교환)</td></tr><tr><td></td><td></td><td>건물</td><td></td><td></td><td>당진 시유지 취득</td></tr></table> － 처분 <table><tr><th>연번</th><th>기관명</th><th colspan="2">면적(㎡)</th><th>기준가격 (천원)</th><th>비 고</th></tr><tr><td rowspan="3"></td><td rowspan="3">처분 계</td><td>토지</td><td>106,752</td><td>5,851,164</td><td rowspan="3"></td></tr><tr><td>건물</td><td>11,313</td><td>3,353,793</td></tr><tr><td>계</td><td>118,065</td><td>9,204,957</td></tr><tr><td>1</td><td>인주중</td><td>토지</td><td>28,222</td><td>3,289,765</td><td>(양 여)</td></tr><tr><td></td><td></td><td>건물</td><td>5,249.34</td><td>2,279,384</td><td>인주중 이전부지 처분</td></tr><tr><td>2</td><td>면천초</td><td>토지</td><td>26,169</td><td>2,032,097</td><td>(교 환)</td></tr><tr><td></td><td></td><td>건물</td><td>2,905</td><td>469,138</td><td>면천초 이전부지 처분</td></tr><tr><td>3</td><td>아산교육지원청</td><td>토지</td><td>23,802</td><td>132,339</td><td>임야 매각</td></tr><tr><td></td><td></td><td>건물</td><td></td><td></td><td></td></tr><tr><td>4</td><td>구별곡초등학교 조동분교장</td><td>토지</td><td>9,840</td><td>116,318</td><td>폐교 매각</td></tr><tr><td></td><td></td><td>건물</td><td>1,208.19</td><td>414,047</td><td></td></tr><tr><td>5</td><td>구호암초등학교 삼동분교장</td><td>토지</td><td>7,070</td><td>62,534</td><td>폐교 매각</td></tr><tr><td></td><td></td><td>건물</td><td>752.47</td><td>44,757</td><td></td></tr><tr><td>6</td><td>구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장</td><td>토지</td><td>11,649</td><td>218,111</td><td>폐교 매각</td></tr><tr><td></td><td></td><td>건물</td><td>1,198</td><td>146,467</td><td></td></tr></table>	연번	기관명	면적(㎡)		기준가격 (천원)	비 고	1	천안초	토지			'체조전용체육관 개축 ⇒ 천안학생수영장 증축	건물	3,146	9,700,000	연번	기관명	면적(㎡)		기준가격 (천원)	비 고		취득 계	토지	33,887	1,820,052		건물	11,111.63	26,427,382	계	44,998.63	28,247,434	1	가칭 "북부유아 체험교육원"	토지			유아체험교육원 신설			건물	2,085	9,898,111		2	가칭 "충남Wee스쿨"	토지			Wee스쿨 이전 신설			건물	2,455	3,836,268		3	천안신안초	토지			(기부채납)			건물	1,697.40	2,593,003	초등학교 교실 증축	4	인주중	토지	28,222	1,209,035	(기부채납)			건물	4,874.23	10,100,000	중학교 이전 신설	5	면천초	토지	5,665	611,017	(교환)			건물			당진 시유지 취득	연번	기관명	면적(㎡)		기준가격 (천원)	비 고		처분 계	토지	106,752	5,851,164		건물	11,313	3,353,793	계	118,065	9,204,957	1	인주중	토지	28,222	3,289,765	(양 여)			건물	5,249.34	2,279,384	인주중 이전부지 처분	2	면천초	토지	26,169	2,032,097	(교 환)			건물	2,905	469,138	면천초 이전부지 처분	3	아산교육지원청	토지	23,802	132,339	임야 매각			건물				4	구별곡초등학교 조동분교장	토지	9,840	116,318	폐교 매각			건물	1,208.19	414,047		5	구호암초등학교 삼동분교장	토지	7,070	62,534	폐교 매각			건물	752.47	44,757		6	구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장	토지	11,649	218,111	폐교 매각			건물	1,198	146,467	
연번	기관명	면적(㎡)		기준가격 (천원)	비 고																																																																																																																																																																																						
1	천안초	토지			'체조전용체육관 개축 ⇒ 천안학생수영장 증축																																																																																																																																																																																						
		건물	3,146	9,700,000																																																																																																																																																																																							
연번	기관명	면적(㎡)		기준가격 (천원)	비 고																																																																																																																																																																																						
	취득 계	토지	33,887	1,820,052																																																																																																																																																																																							
		건물	11,111.63	26,427,382																																																																																																																																																																																							
		계	44,998.63	28,247,434																																																																																																																																																																																							
1	가칭 "북부유아 체험교육원"	토지			유아체험교육원 신설																																																																																																																																																																																						
		건물	2,085	9,898,111																																																																																																																																																																																							
2	가칭 "충남Wee스쿨"	토지			Wee스쿨 이전 신설																																																																																																																																																																																						
		건물	2,455	3,836,268																																																																																																																																																																																							
3	천안신안초	토지			(기부채납)																																																																																																																																																																																						
		건물	1,697.40	2,593,003	초등학교 교실 증축																																																																																																																																																																																						
4	인주중	토지	28,222	1,209,035	(기부채납)																																																																																																																																																																																						
		건물	4,874.23	10,100,000	중학교 이전 신설																																																																																																																																																																																						
5	면천초	토지	5,665	611,017	(교환)																																																																																																																																																																																						
		건물			당진 시유지 취득																																																																																																																																																																																						
연번	기관명	면적(㎡)		기준가격 (천원)	비 고																																																																																																																																																																																						
	처분 계	토지	106,752	5,851,164																																																																																																																																																																																							
		건물	11,313	3,353,793																																																																																																																																																																																							
		계	118,065	9,204,957																																																																																																																																																																																							
1	인주중	토지	28,222	3,289,765	(양 여)																																																																																																																																																																																						
		건물	5,249.34	2,279,384	인주중 이전부지 처분																																																																																																																																																																																						
2	면천초	토지	26,169	2,032,097	(교 환)																																																																																																																																																																																						
		건물	2,905	469,138	면천초 이전부지 처분																																																																																																																																																																																						
3	아산교육지원청	토지	23,802	132,339	임야 매각																																																																																																																																																																																						
		건물																																																																																																																																																																																									
4	구별곡초등학교 조동분교장	토지	9,840	116,318	폐교 매각																																																																																																																																																																																						
		건물	1,208.19	414,047																																																																																																																																																																																							
5	구호암초등학교 삼동분교장	토지	7,070	62,534	폐교 매각																																																																																																																																																																																						
		건물	752.47	44,757																																																																																																																																																																																							
6	구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장	토지	11,649	218,111	폐교 매각																																																																																																																																																																																						
		건물	1,198	146,467																																																																																																																																																																																							
기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원안 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위원 : 유찬중, 김연, 김동욱, 김종문, 김문규, 이공휘, 조길행, 백낙구, 이기철, 장기승, 김종필, 전낙운, 조지연, 김명선, 김복만, 조이환, 김홍열, 오배근, 김기영, 유익환, 김원태																																																																																																																																																																																							
기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원안 가결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위원 : 정광섭, 홍재표, 김용필, 김홍열, 김동욱, 김명선, 김종필, 이공휘, 전낙운																																																																																																																																																																																							
기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장	원안 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 위원장 : 유찬중																																																																																																																																																																																							

제 299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조례안 11, 규칙안 1, 동의안 13, 예산안 1, 결의안 3 / 원안가결 23, 수정가결 6

안건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원안 가결	· 현안사항 발생 시 임시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임시회 회기 : 기존 15일 이내 → 20일 이내로 조정 – 총선거 실시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별도 협의 단서조항 신설 – 의장단의 의회 내부 겸직제한에 대한 조항 신설
규칙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운영위원장	원안 가결	·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함 – 회의록 자구정정 요구 시 : 회의록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 →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정정.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조항 신설(안 제54조의2) – 예산안 등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안 제63조제4항)
결의안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운영위원장	원안 가결	· 도민 건강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 당초 : 2016.10.05. ~ 2017.10.05. – 변경 : 2016.10.05. ~ 2018.06.30.
결의안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운영위원장	원안 가결	· 백제유적을 활용한 충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 당초 : 2016.10.05. ~ 2017.10.05. – 변경 : 2016.10.05. ~ 2018.06.30.
조례안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종화 의원 유익환, 김석곤, 신재원, 이공휘 의원	원안 가결	· 충남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사단법인 설립 (안 제2조) – 도지사가 융합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조례안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직원들의 후생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무실 및 심리 상담실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 의무실 및 심리상담실 등’으로 개정(안 제 5조1항제2호) – ‘충무과장’→‘인재육성과장’, ‘공무원단체담당’→‘후생복지팀장’으로 개정(안 제13조제4항) – 의무실 출장 상담의사에게 수당 지급 가능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동의안	2017년도 제 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	수정 가결	· 관리계획내역 (단위 : m², 천원) <table><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회계</th><th rowspan="2">안전명</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재산현황</th><th rowspan="2">비고</th></tr><tr><th>종류</th><th>수량</th><th>면적</th><th>재산가액</th></tr><tr><td rowspan="4">1</td><td rowspan="4">일반</td><td rowspan="4">충남 스포츠센터 조성</td><td rowspan="4">취득</td><td>계</td><td>3건</td><td>47,958.5</td><td>30,994,669</td><td rowspan="4"></td></tr><tr><td>토지</td><td>2필지</td><td>20,614.7</td><td>2,000,000</td></tr><tr><td>건물</td><td>2동</td><td>8,965.2</td><td>19,606,888</td></tr><tr><td>기타</td><td>2건</td><td>18,387.6</td><td>9,387,781</td></tr><tr><td rowspan="4">2</td><td rowspan="4">일반</td><td rowspan="4">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내포 자연놀이들 건립</td><td rowspan="4">취득</td><td>계</td><td>3건</td><td>23,807</td><td>19,800,000</td><td rowspan="4"></td></tr><tr><td>토지</td><td>1필지</td><td>13,223</td><td>7,400,000</td></tr><tr><td>건물</td><td>1동</td><td>3,972</td><td>10,200,000</td></tr><tr><td>기타</td><td>1건</td><td>6,612</td><td>2,200,000</td></tr><tr><td rowspan="2">3</td><td rowspan="2">일반</td><td rowspan="2">부여군 부여구드래 역사마을 조성부지 확보 관련 도유·군유재산 교환</td><td>취득</td><td>토지</td><td>5필지</td><td>27,677</td><td>725,265</td><td rowspan="2">등가 교환</td></tr><tr><td>처분</td><td>토지</td><td>19필지</td><td>3,546</td><td>725,271</td></tr><tr><td rowspan="2">4</td><td rowspan="2">일반</td><td rowspan="2">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지 집단화를 위한 국·도·군유 재산 교환</td><td>취득</td><td>토지</td><td>184필지</td><td>88,005</td><td>3,349,857</td><td rowspan="2">등가 교환</td></tr><tr><td>처분</td><td>토지</td><td>127필지</td><td>67,466</td><td>3,376,414</td></tr><tr><td rowspan="2">5</td><td rowspan="2">일반</td><td rowspan="2">구)노동화관 매각</td><td rowspan="2">처분</td><td>계</td><td>2건</td><td>3,488.45</td><td>2,131,508</td><td rowspan="2"></td></tr><tr><td>토지</td><td>2필지</td><td>809.9</td><td>1,216,470</td></tr><tr><td></td><td></td><td></td><td></td><td>건물</td><td>1동</td><td>2,678.55</td><td>915,038</td><td></td></tr></table>	연번	회계	안전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일반	충남 스포츠센터 조성	취득	계	3건	47,958.5	30,994,669		토지	2필지	20,614.7	2,000,000	건물	2동	8,965.2	19,606,888	기타	2건	18,387.6	9,387,781	2	일반	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내포 자연놀이들 건립	취득	계	3건	23,807	19,800,000		토지	1필지	13,223	7,400,000	건물	1동	3,972	10,200,000	기타	1건	6,612	2,200,000	3	일반	부여군 부여구드래 역사마을 조성부지 확보 관련 도유·군유재산 교환	취득	토지	5필지	27,677	725,265	등가 교환	처분	토지	19필지	3,546	725,271	4	일반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지 집단화를 위한 국·도·군유 재산 교환	취득	토지	184필지	88,005	3,349,857	등가 교환	처분	토지	127필지	67,466	3,376,414	5	일반	구)노동화관 매각	처분	계	2건	3,488.45	2,131,508		토지	2필지	809.9	1,216,470					건물	1동	2,678.55	915,038	
연번	회계	안전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일반	충남 스포츠센터 조성	취득	계	3건	47,958.5	30,994,669																																																																																																						
				토지	2필지	20,614.7	2,000,000																																																																																																						
				건물	2동	8,965.2	19,606,888																																																																																																						
				기타	2건	18,387.6	9,387,781																																																																																																						
2	일반	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내포 자연놀이들 건립	취득	계	3건	23,807	19,800,000																																																																																																						
				토지	1필지	13,223	7,400,000																																																																																																						
				건물	1동	3,972	10,200,000																																																																																																						
				기타	1건	6,612	2,200,000																																																																																																						
3	일반	부여군 부여구드래 역사마을 조성부지 확보 관련 도유·군유재산 교환	취득	토지	5필지	27,677	725,265	등가 교환																																																																																																					
			처분	토지	19필지	3,546	725,271																																																																																																						
4	일반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지 집단화를 위한 국·도·군유 재산 교환	취득	토지	184필지	88,005	3,349,857	등가 교환																																																																																																					
			처분	토지	127필지	67,466	3,376,414																																																																																																						
5	일반	구)노동화관 매각	처분	계	2건	3,488.45	2,131,508																																																																																																						
				토지	2필지	809.9	1,216,470																																																																																																						
				건물	1동	2,678.55	915,038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 관리계획내역 (단위 : m², 천원) <table><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회계</th><th rowspan="2">안전명</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재산현황</th><th rowspan="2">비고</th></tr><tr><th>종류</th><th>수량</th><th>면적</th><th>재산가액</th></tr><tr><td rowspan="3">1</td><td rowspan="3">일반</td><td rowspan="3">(가칭)내포혁신플랫폼 건립</td><td rowspan="3">취득</td><td>계</td><td>2건</td><td>7,351</td><td>7,000,000</td><td rowspan="3"></td></tr><tr><td>토지</td><td>1필지</td><td>5,886</td><td>3,264,246</td></tr><tr><td>건물</td><td>1동</td><td>1,465</td><td>3,735,754</td></tr></table>	연번	회계	안전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일반	(가칭)내포혁신플랫폼 건립	취득	계	2건	7,351	7,000,000		토지	1필지	5,886	3,264,246	건물	1동	1,465	3,735,754																																																																											
연번	회계	안전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일반	(가칭)내포혁신플랫폼 건립	취득	계	2건	7,351	7,000,000																																																																																																						
				토지	1필지	5,886	3,264,246																																																																																																						
				건물	1동	1,465	3,735,754																																																																																																						
동의안	2018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소관실과</th><th rowspan="2">출연기관</th><th rowspan="2">사업명</th><th rowspan="2">출연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d>계</td><td>6건</td><td>15,993,000</td></tr><tr><td>1</td><td>기획관</td><td>충남연구원</td><td>충남연구원 운영 지원</td><td>6,237,000</td><td></td></tr><tr><td>2</td><td>기획관</td><td>한국지방행정연구원</td><td>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td><td>200,000</td><td>17개시도 공통</td></tr><tr><td>3</td><td>예산 담당관</td><td>지방공기업평가원</td><td>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td><td>66,000</td><td></td></tr><tr><td>4</td><td>교육법무 담당관</td><td>(재)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td><td>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td><td>3,300,000</td><td></td></tr><tr><td>5</td><td>교육법무 담당관</td><td>(재)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td><td>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td><td>3,690,000</td><td></td></tr><tr><td>6</td><td>교육법무 담당관</td><td>(재)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td><td>인재육성재단 운영비</td><td>2,50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6건	15,993,000	1	기획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6,237,000		2	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000	17개시도 공통	3	예산 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6,000		4	교육법무 담당관	(재)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3,300,000		5	교육법무 담당관	(재)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3,690,000		6	교육법무 담당관	(재)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2,500,000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6건	15,993,000																																																																																																						
1	기획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6,237,000																																																																																																									
2	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000	17개시도 공통																																																																																																								
3	예산 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6,000																																																																																																									
4	교육법무 담당관	(재)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3,300,000																																																																																																									
5	교육법무 담당관	(재)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3,690,000																																																																																																									
6	교육법무 담당관	(재)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2,500,000																																																																																																									
동의안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소관실과</th><th rowspan="2">출연기관</th><th rowspan="2">사업명</th><th rowspan="2">출연금액</th><th rowspan="2">비고</th></tr><tr><td>계</td><td></td><td>40,551,100</td></tr><tr><td>1</td><td>미래 정책과</td><td>(재)국방대학교발전기금</td><td>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계속)</td><td>2,500,000</td><td>자체</td></tr><tr><td rowspan="2">2</td><td rowspan="2">신성장 동력과</td><td>(재)충남청조경제혁신센터</td><td>충남형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지원(신규)외 3건</td><td>4,502,000</td><td></td></tr><tr><td>(재)충남테크노파크</td><td>충남 S/W 융합산업 육성지원(계속) 외 6건</td><td>2,205,000</td><td></td></tr><tr><td>3</td><td rowspan="2">산업 육성과</td><td>(재)충남테크노파크</td><td>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 성화 지원사업(계속)외 15건</td><td>31,244,100</td><td></td></tr><tr><td>4</td><td>(사)충남산학융합원</td><td>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계속)</td><td>10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40,551,100	1	미래 정책과	(재)국방대학교발전기금	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계속)	2,500,000	자체	2	신성장 동력과	(재)충남청조경제혁신센터	충남형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지원(신규)외 3건	4,502,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S/W 융합산업 육성지원(계속) 외 6건	2,205,000		3	산업 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 성화 지원사업(계속)외 15건	31,244,100		4	(사)충남산학융합원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계속)	100,000	“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40,551,100																																																																																																						
1	미래 정책과	(재)국방대학교발전기금	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계속)	2,500,000	자체																																																																																																								
2	신성장 동력과	(재)충남청조경제혁신센터	충남형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지원(신규)외 3건	4,502,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S/W 융합산업 육성지원(계속) 외 6건	2,205,000																																																																																																									
3	산업 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 성화 지원사업(계속)외 15건	31,244,100																																																																																																									
4		(사)충남산학융합원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계속)	10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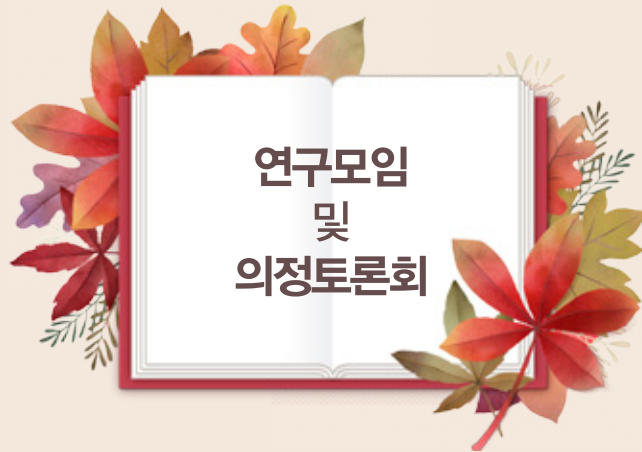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동의안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tr><td>1</td><td>세무회계과</td><td>한국지방세연구원</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td><td>186,441</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1	세무회계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186,441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1	세무회계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186,441																																																												
조례안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정정희 의원 윤지상, 이기철, 조길행, 김 연, 김원태, 장기승, 김문규 의원	원안 가결	·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 학습· 실천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도민에게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학교, 도민 간 상호협력체계 구성, 노력토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 군 및 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동의안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도지사	수정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tr><td></td><td></td><td>계</td><td></td><td>3,188,268</td><td></td></tr><tr><td>1</td><td>여성가족정책관실</td><td>(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td><td>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td><td>2,014,348</td><td></td></tr><tr><td>2</td><td>여성가족정책관실</td><td>(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td><td>청소년진흥원 운영비</td><td>1,173,92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3,188,268		1	여성가족정책관실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2,014,348		2	여성가족정책관실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진흥원 운영비	1,173,920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3,188,268																																																												
1	여성가족정책관실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2,014,348																																																												
2	여성가족정책관실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진흥원 운영비	1,173,920																																																												
동의안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tr><td></td><td></td><td>계</td><td></td><td>11,898,500</td><td></td></tr><tr><td>1</td><td>문화정책과</td><td>충남역사문화연구원</td><td>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td><td>2,910,000</td><td></td></tr><tr><td>2</td><td>문화정책과</td><td>충남문화재단</td><td>충남문화재단 출연금</td><td>3,394,500</td><td></td></tr><tr><td>3</td><td>문화정책과</td><td>충남문화산업진흥원</td><td>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td><td>2,104,000</td><td></td></tr><tr><td>4</td><td>문화유산과</td><td>충남역사문화연구원</td><td>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td><td>310,000</td><td></td></tr><tr><td>5</td><td>문화유산과</td><td>백제세계유산센터</td><td>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td><td>400,000</td><td></td></tr><tr><td>6</td><td>관광마케팅과</td><td>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td><td>2020 계룡세계군 문화엑스포</td><td>1,000,000</td><td></td></tr><tr><td>7</td><td>관광마케팅과</td><td>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td><td>제64회 백제문화제</td><td>1,78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11,898,500		1	문화정책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2,910,000		2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출연금	3,394,500		3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2,104,000		4	문화유산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310,000		5	문화유산과	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000		6	관광마케팅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2020 계룡세계군 문화엑스포	1,000,000		7	관광마케팅과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제64회 백제문화제	1,780,000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11,898,500																																																												
1	문화정책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2,910,000																																																												
2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출연금	3,394,500																																																												
3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2,104,000																																																												
4	문화유산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310,000																																																												
5	문화유산과	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000																																																												
6	관광마케팅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2020 계룡세계군 문화엑스포	1,000,000																																																												
7	관광마케팅과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제64회 백제문화제	1,780,000																																																												
동의안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tr><td></td><td></td><td>계</td><td></td><td>2,865,848</td><td></td></tr><tr><td>1</td><td>보건정책과</td><td>공주의료원</td><td>공공사업활성화 추진을 위한 의료원 버스구입 지원</td><td>120,000</td><td>신규</td></tr><tr><td>2</td><td>보건정책과</td><td>서산의료원</td><td>서산노인전문병원 소방시설 설치</td><td>350,000</td><td>신규</td></tr><tr><td>3</td><td>보건정책과</td><td>2개 의료원 (서산·홍성)</td><td>충남의료원 자본 형성적 용자금 원금 상환 지원</td><td>863,000</td><td>계속</td></tr><tr><td>4</td><td>보건정책과</td><td>2개 의료원 (천안·공주)</td><td>유동성 악화 의료원 용자금 이차지원</td><td>392,848</td><td>계속</td></tr><tr><td>5</td><td>보건정책과</td><td>4개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td><td>충남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td><td>400,000</td><td>계속</td></tr><tr><td>6</td><td>보건정책과</td><td>4개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td><td>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td><td>360,000</td><td>계속</td></tr><tr><td>7</td><td>보건정책과</td><td>4개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td><td>충남의료원 공공보건사업</td><td>180,000</td><td>계속</td></tr><tr><td>8</td><td>보건정책과</td><td>홍성의료원</td><td>찾아가는 임신부 행복병원 운영</td><td>200,000</td><td>계속</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2,865,848		1	보건정책과	공주의료원	공공사업활성화 추진을 위한 의료원 버스구입 지원	120,000	신규	2	보건정책과	서산의료원	서산노인전문병원 소방시설 설치	350,000	신규	3	보건정책과	2개 의료원 (서산·홍성)	충남의료원 자본 형성적 용자금 원금 상환 지원	863,000	계속	4	보건정책과	2개 의료원 (천안·공주)	유동성 악화 의료원 용자금 이차지원	392,848	계속	5	보건정책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	충남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400,000	계속	6	보건정책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360,000	계속	7	보건정책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	충남의료원 공공보건사업	180,000	계속	8	보건정책과	홍성의료원	찾아가는 임신부 행복병원 운영	200,000	계속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2,865,848																																																												
1	보건정책과	공주의료원	공공사업활성화 추진을 위한 의료원 버스구입 지원	120,000	신규																																																											
2	보건정책과	서산의료원	서산노인전문병원 소방시설 설치	350,000	신규																																																											
3	보건정책과	2개 의료원 (서산·홍성)	충남의료원 자본 형성적 용자금 원금 상환 지원	863,000	계속																																																											
4	보건정책과	2개 의료원 (천안·공주)	유동성 악화 의료원 용자금 이차지원	392,848	계속																																																											
5	보건정책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	충남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400,000	계속																																																											
6	보건정책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360,000	계속																																																											
7	보건정책과	4개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	충남의료원 공공보건사업	180,000	계속																																																											
8	보건정책과	홍성의료원	찾아가는 임신부 행복병원 운영	200,000	계속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복만 의원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송덕빈, 유병국, 김응규, 홍재표 의원	원안 가결	· 상위법령(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임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 및 확인신고 대상 제품의 인증 및 확인신고를 면제받기 위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3조) － 안전인증 및 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을 받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안 제 5조) (모델 1개당 10,000원 초과 금지)																																																																																																										
조례안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가결	· 친환경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과 시·군센터 간 네트워크 및 총괄 조정을 위한 광역급식지원센터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 및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 (안 제102조의2)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동의안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도지사	수정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tr><td></td><td></td><td>계</td><td></td><td>8,334,500</td><td></td></tr><tr><td>1</td><td>경제정책과</td><td>충남신용보증재단</td><td>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조성운용</td><td>200,000</td><td>신규</td></tr><tr><td>2</td><td rowspan="2">일자리 노동정책과</td><td rowspan="2">충남테크노파크</td><td>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td><td>700,000</td><td></td></tr><tr><td>3</td><td>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지원</td><td>150,000</td><td></td></tr><tr><td>4</td><td rowspan="10">기업통상교류과</td><td rowspan="10">충남신용보증재단</td><td>신용 보증재원 기본재산 출연</td><td>1,000,000</td><td>신규</td></tr><tr><td>5</td><td rowspan="10">충남 경제진흥원</td><td>충남 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 상각비 지원</td><td>240,000</td><td></td></tr><tr><td>6</td><td>충남 경제진흥원 노후시설 개보수</td><td>1,317,000</td><td></td></tr><tr><td>7</td><td>충남 경제진흥원 조직진단</td><td>40,000</td><td>신규</td></tr><tr><td>8</td><td>충남 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td><td>80,000</td><td></td></tr><tr><td>9</td><td>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td><td>10,000</td><td>신규</td></tr><tr><td>10</td><td>동반성장 협력사업</td><td>93,500</td><td></td></tr><tr><td>11</td><td>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td><td>460,000</td><td></td></tr><tr><td>12</td><td>충남 BIZ-클러스터 운영</td><td>80,000</td><td></td></tr><tr><td>13</td><td>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td><td>200,000</td><td></td></tr><tr><td>14</td><td>TV홈쇼핑(홈&쇼핑)입점 지원</td><td>121,000</td><td></td></tr><tr><td>15</td><td rowspan="7">기업통상교류과</td><td rowspan="7">충남경제진흥원</td><td>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td><td>100,000</td><td></td></tr><tr><td>16</td><td>기업가정신센터 운영</td><td>33,000</td><td>신규</td></tr><tr><td>17</td><td>중소기업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td><td>100,000</td><td>신규</td></tr><tr><td>18</td><td>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td><td>300,000</td><td></td></tr><tr><td>19</td><td>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td><td>100,000</td><td></td></tr><tr><td>20</td><td rowspan="2">충남테크노파크</td><td>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지원</td><td>10,000</td><td>신규</td></tr><tr><td>21</td><td>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육성 벤처펀드 조성</td><td>3,000,000</td><td>신규 (기금)</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8,334,500		1	경제정책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조성운용	200,000	신규	2	일자리 노동정책과	충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700,000		3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150,000		4	기업통상교류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 보증재원 기본재산 출연	1,000,000	신규	5	충남 경제진흥원	충남 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 상각비 지원	240,000		6	충남 경제진흥원 노후시설 개보수	1,317,000		7	충남 경제진흥원 조직진단	40,000	신규	8	충남 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80,000		9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0,000	신규	10	동반성장 협력사업	93,500		11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460,000		12	충남 BIZ-클러스터 운영	80,000		13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200,000		14	TV홈쇼핑(홈&쇼핑)입점 지원	121,000		15	기업통상교류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00,000		16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33,000	신규	17	중소기업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100,000	신규	18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300,000		19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00,000		20	충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지원	10,000	신규	21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육성 벤처펀드 조성	3,000,000	신규 (기금)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8,334,500																																																																																																										
1	경제정책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조성운용	200,000	신규																																																																																																									
2	일자리 노동정책과	충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700,000																																																																																																										
3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150,000																																																																																																										
4	기업통상교류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 보증재원 기본재산 출연	1,000,000	신규																																																																																																									
5			충남 경제진흥원	충남 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 상각비 지원	240,000																																																																																																									
6				충남 경제진흥원 노후시설 개보수	1,317,000																																																																																																									
7				충남 경제진흥원 조직진단	40,000	신규																																																																																																								
8				충남 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80,000																																																																																																									
9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0,000	신규																																																																																																								
10				동반성장 협력사업	93,500																																																																																																									
11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460,000																																																																																																									
12				충남 BIZ-클러스터 운영	80,000																																																																																																									
13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200,000																																																																																																									
14	TV홈쇼핑(홈&쇼핑)입점 지원	121,000																																																																																																												
15	기업통상교류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00,000																																																																																																										
16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33,000	신규																																																																																																									
17			중소기업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100,000	신규																																																																																																									
18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300,000																																																																																																										
19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00,000																																																																																																										
20			충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지원	10,000	신규																																																																																																								
21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육성 벤처펀드 조성	3,000,000	신규 (기금)																																																																																																								
동의안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도지사	수정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tr><td></td><td></td><td>계</td><td></td><td>2,138,000</td><td></td></tr><tr><td>1</td><td>농업정책과</td><td>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td><td>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td><td>800,000</td><td></td></tr><tr><td>2</td><td>농업정책과</td><td>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td><td>시설디렉토리 구축</td><td>50,000</td><td></td></tr><tr><td>3</td><td>농업정책과</td><td>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td><td>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td><td>210,000</td><td></td></tr><tr><td>4</td><td>농업정책과</td><td>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td><td>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td><td>280,000</td><td></td></tr><tr><td>5</td><td>농업정책과</td><td>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td><td>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td><td>280,000</td><td></td></tr><tr><td>6</td><td>농업정책과</td><td>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td><td>충남 6차산업 홈페이지 관리</td><td>40,000</td><td></td></tr><tr><td>7</td><td>농촌마을지원과</td><td>충남연구원</td><td>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td><td>478,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2,138,000		1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800,000		2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시설디렉토리 구축	50,000		3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10,000		4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280,000		5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280,000		6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충남 6차산업 홈페이지 관리	40,000		7	농촌마을지원과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478,000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2,138,000																																																																																																										
1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800,000																																																																																																										
2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시설디렉토리 구축	50,000																																																																																																										
3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10,000																																																																																																										
4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280,000																																																																																																										
5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280,000																																																																																																										
6	농업정책과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충남 6차산업 홈페이지 관리	40,000																																																																																																										
7	농촌마을지원과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478,000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동의안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tr><td></td><td></td><td>계</td><td></td><td>709,000</td><td></td></tr><tr><td>1</td><td>기후환경정책과</td><td>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연구대응센터)</td><td>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td><td>350,000</td><td></td></tr><tr><td>2</td><td>물관리정책과</td><td>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td><td>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td><td>49,000</td><td></td></tr><tr><td>3</td><td>물관리정책과</td><td>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td><td>물환경연구센터 지원</td><td>31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709,000		1	기후환경정책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연구대응센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350,000		2	물관리정책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49,000		3	물관리정책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지원	310,000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709,000																														
1	기후환경정책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연구대응센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350,000																														
2	물관리정책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49,000																														
3	물관리정책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지원	310,000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 가결	· 상위법령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 시행 － 충청남도경관디자인위원회 ⇒ 충청남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변경 운영 (위원 70명 이내, 임기 2년) －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규정																														
동의안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도지사	원안 가결	· 2018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table><tr><th>연번</th><th>소관실과</th><th>출연기관</th><th>사업명</th><th>출연금액</th><th>비고</th></tr><tr><td></td><td></td><td>계</td><td></td><td>2,540,000</td><td></td></tr><tr><td>1</td><td>건축도시과</td><td>충남 공공디자인센터</td><td>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td><td>600,000</td><td></td></tr><tr><td>2</td><td>도로교통과</td><td>충청남도교통연수원</td><td>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사업</td><td>1,940,000</td><td></td></tr></table>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2,540,000		1	건축도시과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600,000		2	도로교통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사업	1,940,000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계		2,540,000																														
1	건축도시과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600,000																														
2	도로교통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사업	1,940,000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장기승, 이진환,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의원	원안 가결	· 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바른 인성 함양 등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시행 계획 수립 추진 － 인문학 교육 주간 운영 －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용필 의원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의원	원안 가결	·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고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김용필 의원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이종화 의원	원안 가결	·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토록 교육감의 책무규정(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민주 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토록 규정(안 제7~9조) (위원 15명 이내, 임기 2년)																														

안전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주요 내용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대표발의 오배근 의원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인철 의원	원안 가결	·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 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의 책무규정(안 제6조) － 교육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토록 규정 (위원 15명 이내, 임기 2년)																																													
동의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원안 가결	주요내용 <table><tr><th>연번</th><th>기관명</th><th colspan="2">면적(㎡)</th><th>기준가격(천원)</th><th>비고</th></tr><tr><td rowspan="3"></td><td rowspan="3">취득 계</td><td>토지</td><td>16,176</td><td>18,216,000</td><td rowspan="3"></td></tr><tr><td>건물</td><td>17,447</td><td>34,031,122</td></tr><tr><td>계</td><td>33,623</td><td>52,247,122</td></tr><tr><td rowspan="2">1</td><td rowspan="2">가칭"천안변영유치원"</td><td>토지</td><td>3,107</td><td>4,100,000</td><td rowspan="2">단설유치원 신설</td></tr><tr><td>건물</td><td>3,861</td><td>7,950,000</td></tr><tr><td rowspan="2">2</td><td rowspan="2">가칭"천안희망초등학교"</td><td>토지</td><td>13,069</td><td>14,116,000</td><td rowspan="2">초등학교 신설</td></tr><tr><td>건물</td><td>12,506</td><td>23,443,000</td></tr><tr><td rowspan="2">3</td><td rowspan="2">목천고등학교</td><td>토지</td><td></td><td></td><td rowspan="2">기숙사 증축</td></tr><tr><td>건물</td><td>1,080</td><td>2,638,122</td></tr></table>	연번	기관명	면적(㎡)		기준가격(천원)	비고		취득 계	토지	16,176	18,216,000		건물	17,447	34,031,122	계	33,623	52,247,122	1	가칭"천안변영유치원"	토지	3,107	4,100,000	단설유치원 신설	건물	3,861	7,950,000	2	가칭"천안희망초등학교"	토지	13,069	14,116,000	초등학교 신설	건물	12,506	23,443,000	3	목천고등학교	토지			기숙사 증축	건물	1,080	2,638,122
연번	기관명	면적(㎡)		기준가격(천원)	비고																																												
	취득 계	토지	16,176	18,216,000																																													
		건물	17,447	34,031,122																																													
		계	33,623	52,247,122																																													
1	가칭"천안변영유치원"	토지	3,107	4,100,000	단설유치원 신설																																												
		건물	3,861	7,950,000																																													
2	가칭"천안희망초등학교"	토지	13,069	14,116,000	초등학교 신설																																												
		건물	12,506	23,443,000																																													
3	목천고등학교	토지			기숙사 증축																																												
		건물	1,080	2,638,122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감	수정 가결	주요내용 총 규모 : 3조 3,600억원 (기정예산 대비 5.8%, 1,854억원 ↑) (단위 : 백만원, %) <table><tr><th>구 분</th><th>추경예산안</th><th>기정예산액</th><th>비교증감</th><th>증감률</th></tr><tr><td>세입·세출</td><td>3,360,075</td><td>3,174,691</td><td>185,384</td><td>5.8</td></tr></table>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세출	3,360,075	3,174,691	185,384	5.8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세출	3,360,075	3,174,691	185,384	5.8																																													
결의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전낙운 의원 김명선, 김동욱, 강용일, 정광섭, 송덕빈, 김석곤, 홍성현 의원	원안 가결	·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들의 부담이 수직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특히,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함																																													





모바일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07.25 이공휘 대표

충남도의회, 모바일빅데이터 활용한 도내 축제 발전 방안 구상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모바일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공휘)은 지난 7월 25일 연구회 회원 및 충남연구원 전문가 등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머드축제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보령머드축제 행사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현장의 분위기 직접체험을 통해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접목한 축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은 이날 보령머드축제 현장을 청취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 머드축제 현장을 체험했다. 연구모임은 또 체험행사와 연계행사, 야간행사를 살핀 뒤 향후 모바일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은 이공휘 의원(천안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바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에서도 모바일빅데이터를 분석해 과학적인 축제의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령머드축제의 경우 경제적 유발효과만 700억원 이상인 행사다. 빅데이터를 활용,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접목 가능한 정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모바일빅데이터 활용한
공공정책 발굴 연구모임,
보령머드축제
현장 찾아 의견 수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의정토론회 07.28 김 연 의원



[의정 토론회]

김연 의원 요청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위한 지원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문제 함께 푼다

충남도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와 달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설치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한 탓인데, 조례 개정(안화)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및 향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28일 충남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 의원이 좌장을,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이와 관련한 주제를 발표했다. 또 박근식 꽃다지 장애인합창단 지휘자와 이은희 충남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 대표, 이종화 충남도의원, 조민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 총감독, 이준관 도 문화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연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법제도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중앙 역시 장애인문화예술원을 설립하는 등 걸음마 단계다. 지방정부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확산의 좋은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조례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08.09 이공취 대표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빅데이터로 범죄 패턴 분석...범죄 예방한다

충남도의회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역자료 연계를 통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8월 9일 충남경찰청에서 김재원 청장을 만나 범죄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법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범죄 예방과 검거율을 높이고 있다.

실제 미국 LAPD(로스앤젤레스 경찰조직)와 산타크루즈 경찰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의 추세를 예측하는 기법을 활용 중이다.

그 결과, 절도를 33%, 폭력범죄 21%, 재산관련 범죄 12% 등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공취 대표(천안 8)는 "LAPD는 지난 80년간 1300만 건의 범죄 건수를 바탕으로 수리적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충남에서도 이러한 범죄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순찰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제 시스템(CCTV)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연구모임,
경찰청장 만나
천안·아산 등 범죄 예방
빅데이터 활용법 논의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09.14 맹정호 의원



[의정 토론회]

맹정호 의원 요청으로,
대기환경 규제
내실있는 방안 모색 위한
여론수렴

충남도의의회, 대산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의회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론수렴에 나섰다. 충남도의의회는 지난 9월 14일 서산 문화회관에서 '대산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맹정호 의원(서산1)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 규제에 대한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남지역 미세먼지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안재수 도 환경보전팀장과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안효돈 대산읍발전협의회 부회장, 김동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공장 증설 등으로 대산지역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며 "울산과 여수 등과 함께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을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전남 순천시·여수시 등은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한 곳도 없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09.26 김응규 대표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위한 현장활동 나서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아산시 일원 대유목장과 와우목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모임이 분석한 무허가축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총 1만7383호의 축사 가운데 8189호(47%)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로, 적법화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우와 젖소 등 축산 농가가 7119호에 달했으며, 돼지농가 265호, 닭·오리 등 양계장이 226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응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적법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시군부서마다 건축과 환경 등의 규정 및 법 해석이 상이하다”며 “건축조례가 지난 6월 대부분 개정된 만큼 적법화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농가 역시 적법화 추진 시 절차의 복잡함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서천축협업의 일괄상담 및 접수, 일괄처리 사례 등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위한 연구모임...
와우목장과 대유목장 찾아
목소리 청취

모바일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 09.29 이공휘 대표



[연구모임]

모바일빅데이터
활용한 공공정책 발굴
연구모임, 백제문화제
현장 찾아 의견 수렴

충남도의회, 모바일 빅데이터에 기반한 축제 활성화 방안 구상

충남도의회 모바일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공휘)은 지난 9월 29~30일 양일간 관계전문가 1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백제문화제 축제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백제문화제 추진에 있어 모바일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 방문객 및 형태를 과학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 활성화 방안과 마케팅 활용법을 탐색한다는 복안이다. 이공휘 대표를 비롯한 모임 관계자는 이날 축제를 운영하는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유 토론회로 모바일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 평가 및 마케팅 방안을 논의했다. 또 비과학적으로 추산되는 축제 방문객수에 대해 통신사의 가입자에 보정계수를 적용, 실제 관광객 참여자를 파악하는 작업도 시도, 맞춤형 행사 마케팅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백제문화제 등 각종 축제에 대해 방문객 부풀리기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둔 축제평가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미래성장산업인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책 모색

[의정토론회]

유병국 의원,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지향점 제시

충남도의회는 10월 13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병국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지구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과 다중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으로 초래되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유 의원이 좌장을, 정창용 풍일농장 대표와 정남수 공주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홍승지 충남대 교수와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최택용 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농업 분야의 스마트화를 진행해 경쟁력을 높이고 충남도 농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와 병해충 관리 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 팜을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물의 생산 품질 향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산 구도심 살리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0.16 전낙운 의원



[의정토론회]

전낙운 의원,
논산 구도심 살리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논산지역 구도심 살리기 위한 대응책 모색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충남도 남부평생학습관에서 '논산구도심 살리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낙운 의원(논산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논산구도심지역의 낙후 실태와 재생 방향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향후 예산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임준홍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새정부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징을 주제로 발제 자료를 발표했고, 최상덕 조은건설 대표이사과 김관호 도 건축도시과장, 강문구 논산시 도시주택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낙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산시 구도심의 경우 2000년 5500여명이었던 인구가 2015년 3400여명으로 37.7% 감소했다”며 “도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발굴 및 컨설팅 등 지원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 의정토론회 개최

[의정토론회]

김종필 의원
외국인 노동자
우리사회 미치는 영향 분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연구원에서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 전망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필 의원(서산2)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최근 100만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과 신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생산가능인구)은 2012년 111만4000명에서 지난해 142만5000명으로 31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지난해 기준 13만2000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제조업 집적지인 충남 서북부권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청년실업 가속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국내 인력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고학력자가 늘다 보니 단순 노동이나 생산업종 등에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포토의정

Photo Courtesy

김명선 의원, 홍성현 의원, 서형달 의원,
김원태 의원, 조이환 의원은 대전 호텔
ICC에서 제4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 07. 17.



↑ 07. 20.

이공희 의원, 김연 의원, 오인철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
상을 수상

07. 22. ↑

윤석우 의장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
린 제4회 충남 대전 세종 고향마실 페스
티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

이공휘 의원, 김연 의원, 이진환 의원,
김종문 의원은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열
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 08. 15.



김종문, 김석곤, 김복만 의원은 서
울 명동에서 열린 금산세계인삼엑
스포 D-50일 행사에 참석

↓ 08. 04.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은 천안 삼거리
에서 열린 제15회 충청남도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

↓ 08. 09.



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
원장단은 충남도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마련된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
을 격려

↓ 08. 22.



↑ 08. 17.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송덕빈 의원,
전낙운 의원, 김석곤 의원, 김복만 의원은 논
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17년 충남새
농민 전진대회에 참석

윤석우 의장은 충남개발공사 10층 대회의실
에서 열린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 08. 23.



08. 25.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김석곤 위원장, 김복만 의원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일원에서 열린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기원 D-30 기념행사에 참석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서울 웅진그룹에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만나 충남지역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유치를 요청



09. 04.



09. 06.

주관 : SSN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후원 :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충남사회복지직능단체

삼성디스플레이



09. 04.

충남도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우 의장을 비롯해 신재원 부의장과 김종문 의회운영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규 의원 등이 참석



09. 08.



서산여자중학교 3학년 6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교실이 열려 김종필의원이 학생들을 격려



09. 18.

윤석우 의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 오배근 의원, 김명선 의원은 충남도청 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18기 충남지역회의 출범식에 참석



09. 21.

윤석우 의장은 금산 인삼도매센터 일원에서 열린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09. 22.

윤석우 의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



09. 25.

윤석우 의장은 예산군 리솜스
파캐슬에서 열린 2017 나눔실
천 유공자 포상식에 참석



09. 25.

조치연 부의장은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



09. 26.



윤석우 의장은 논산으로 자리를 옮긴 국방대학교 이천
기념식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09. 26.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 이진환
의원, 홍성현 의원, 김연 의원은
9월 26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2017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09. 28.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이 충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장으로 위촉됐다. 김연
의원관과 이공휘 의원을 비롯한 조사단은 향
후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
와 환수를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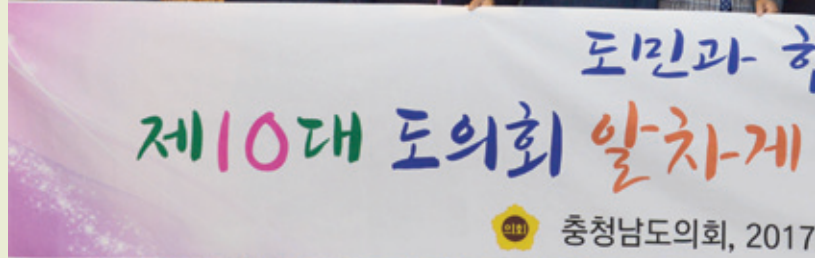
09. 29.

윤석우 의장, 신재원 부의장, 이공휘 의원, 조길행 의원, 김원태 의원, 김연 의원은 공주 신관공원에서 열린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충남도의회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태안리조트에서 2017년 의정워크숍을 개최



10. 16.



10. 13.



윤석우 의장, 김기영 의원, 이종화 의원은 10월 13일 충남 보훈회관에서 열린 제2회 호국영령 추모제에 참석

10. 18.



윤석우 의장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



도의회 의정워크숍

7, 태안리습오션캐슬



함께!
마무리 하겠습니다

10. 16 ~ 10. 17



10. 19.

윤석우 의장,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차 정기회에 참석



10. 19.

윤석우 의장과 조길행 의원은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제2회 동네자치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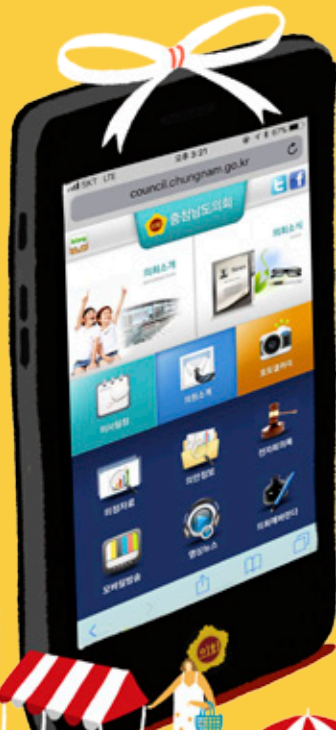


10. 23.

윤석우 의장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접속방법

-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council.chungnam.go.kr) 입력
- ②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http://blog.naver.com/cncouncil>



<http://www.facebook.com/cncouncilNP>



카카오톡에서 Cnc12 검색 후
소식받기



<http://mobile.twitter.com/council>

의회 방청 안내

의회홈페이지 (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청문의 총무담당관실 (041-635-5054)

방청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은 금지됩니다.

- ①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② 회의장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③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방법

이메일 | min1229@korea.kr

전 화 | 041-635-5102 팩 스 | 041-635-5009

우 편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